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



일시 _ 2021. 8. 18(수) ~ 8. 19(목)

장소 _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

주최 _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수 일정표

회차	시 간	내 용
1일차	09:30-10:00	등록
	10:00-10:30	프로그램 안내
	10:30-12:00	대안학교의 현재와 미래 여태전 교장(상주중학교)
		장소: 다이아몬드 홀
	12:00-13:30	중식
	13:30-15:20	[관리자/강의] 대안학교 운영 사례 우남주 교장(강동중학교) [교원/워크숍]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하태종 교무부장(남해보물섬고등학교)
		장소 : 다이아몬드 홀 장소 : 펄 홀
	15:20-15:30	휴식
	15:30-17:20	[관리자/워크숍]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소통 전략 여태전 교장(상주중학교) [교원/강의] 청소년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 김경옥 대표(공간 민들레)
		장소 : 다이아몬드 홀 장소 : 펄 홀
2일차	17:20-18:00	휴식 및 체크인
	18:00-19:00	석식
	09:00-09:20	프로그램 안내
	09:20-10:10	[분과 토의] 진행: 박혜성 장학사(전남교육청) [분과 토의] 진행: 황세영 센터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장소 : 다이아몬드 홀 장소 : 펄 홀
	10:10-10:20	휴식
	10:20-12:10	대안학교에서의 수업 김주원 교장(태봉고등학교)
		장소: 다이아몬드 홀
	12:10-13:30	중식

목 차

1. 대안학교의 현재와 미래	1
▶ 여태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2. [관리자/강의] 대안학교 운영 사례	23
: 이 시대의 학생 이해와 대안교육	
▶ 우남주 강동중학교 교장	
3. [교원/워크숍]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45
: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교육과정 사례	
▶ 하태종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교무부장	
4. [관리자/워크숍]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소통 전략	67
: 공교육 속의 대안교육 실천 사례 나누기	
▶ 여태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5. [교원/강의] 청소년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	83
: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1년의 교육과정	
▶ 김경옥 공간민들레 대표	
6. 대안학교에서의 수업	123
▶ 김주원 태봉고등학교 교장	

대안학교의 현재와 미래

여 태 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한국 대안학교의 현재와 미래

여 태 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I. 왜 대안교육, 대안학교인가?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는 성찰적 사유에서부터 출발한다. 작고 사소한 일상의 삶에서부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며 끊임없이 자기가 선 자리를 성찰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자기가 선 자리를 부정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긍정을 만들어내기. 이런 성찰적 사유가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첫걸음이 된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낮은 길 가려네 ……”

간디학교의 교가는 이렇게 시작한다. 왜 대안학교인가? 나는 주저 없이 ‘꿈꾸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무작정 꿈만 꾸고 사랑만 하면 대안이 나오는가. 아니다. 성찰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성찰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성찰 없는 대안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진보 교육운동의 제 일선에 서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을 되찾으려는 성찰적 지성인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다.

다시 묻자.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나 깨나 꿈과 사랑을 노래하며 배움의 열정에 목마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진리 추구를 삶의 본질로 아는 단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복을 창조하는 ‘행복학교’다.

대안학교는 단순히 기존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문제아 수용소가 아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다. 문제라고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오히려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를 갇잡게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삶과 세상을 꿈꾸는 ‘꿈의 학교’다.

대안학교에는 자본주의의 승자독식 게임에서 일찌감치 뛰쳐나온 상처 입은 영혼들도 있다. 부잣집 아이들도 있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있다. 지식 공부에 능통한 아이들도 있고 지식 공부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아이들도 있다. 대안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두루두루 섞여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삶의 학교’다.

그렇다. 우리가 한결 같이 바라는 새로운 학교, 미래학교의 모습도 바로 행복학교, 꿈의 학교, 삶의 학교가 아니던가. 그러니 대안학교는 곧 ‘미래학교’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대안학교, 미래학교는 근대교육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새로운 학교다. 미래학교는 개개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자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우화에서 성실한 거북이가 잠자는 토끼를 버려두고 혼자 1등 하는 것을 자랑삼는 것이 근대교육의 단면이라면, 비록 잠자는 토끼가 알미워도 깨워서 ‘함께 가자 우리’를 외치는 학교가 대안학교요 미래학교라고 할 수 있다.

II. 성찰과 진단 : 대안교육의 관점과 철학 세우기

1. 승자독식사회의 과잉경쟁교육 : “병든 사회, 아픈 교육”

오늘의 한국사회와 우리교육의 현실을 가장 쉽게 표현 한 말이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 아닐까싶다. 현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4년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펴낸 책 제목이 <병든 사회, 아픈 교육>¹⁾이다.

이 책에서 조희연은 “병든 사회는 아픈 교육을 낳는다. 교육의 아픔은 다시 사회의 병을 심화시키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한다. 나는 한국사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의 아픔과 사회의 병 사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과잉경쟁은 서로 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성을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에서 더욱 여실히 나타난다. 다른 학생을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적대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왜곡 현상에 학생 자살과 학교 폭력도 위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맥락에서 조희연은 “이 땅의 자기 파괴적인 과잉경쟁교육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요법에서 구조 전환으로”로 “교육을 개혁하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무한정한 탐욕을 부추기는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를 변혁하라”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2019년 8월 초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가 열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다. 여기서 <경쟁에 반대한다>²⁾의 저자 알피 콘을 초청하여 “경쟁을 넘어서야 미래교육이 보인다”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 것도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을 넘어서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들레출판사 현병호 대표는 “흔히 경쟁이 경쟁력을 길러준다고 여기지만, 경쟁은 개인의 생명력을 갉아먹을 뿐더러 사회 전체로도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경쟁은 다만 사람들을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일 따름이다. (중략) 굳이

1) 조희연. 병든 사회, 아픈 교육. 2014. 한울.

2) 알피 콘. 이영노 옮김. 경쟁에 반대한다. 2019. 민들레.

하지 않아도 될 경쟁, 모두를 피폐하게 만드는 경쟁을 사회구조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이 책을 통해 “경쟁교육을 넘어서는 길”을 찾자고 호소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에서는 그 길이 곧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우리 교육은 엘리트라는 괴물을 양산해왔고,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은 괴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왔다.”

2020년 의사들의 파업과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한 말이다. 섬뜩한 말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데 교육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의 현실에서 의료계 집단 이기주의는 벌써 예견된 일이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파업하는 의사들을 타하기 전에 그런 의사를 길러낸 우리 교육계가 먼저 성찰하고 참회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무한경쟁과 1등 주의를 조장하고 묵인해왔던 우리들 자화상이 오늘의 현실 아니던가. 의사, 판사, 검사 되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며 은연중에 우리 ‘탐욕’을 투사하여 길러낸 엘리트들이 아니던가. 우리의 꿈과 희망이었던 저 자랑스러운 1등들이 어찌 저런 괴물로 바뀔 수 있느냐고 탄식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우리 자신들 얼굴에 침 뱉기다.

물론 우리도 일찍부터 이런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의 구조와 시스템을 고쳐보려고 무던히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벌사회’ 구조와 ‘입시위주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바라던 ‘교육개혁’의 성과는 더디기만 했다. 끝없이 탐욕을 부추기는 ‘승자독식사회 과잉경쟁교육’은 우리 자신을 서서히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했다.

다시 ‘교육혁명’을 생각한다.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의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삶을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교 1등과 꼴찌가 함께 손잡고 저마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진정한 엘리트’를 길러내자.

2.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승자독식 사회의 과잉경쟁 교육은 한국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한 시대를 낳고 있다는 자조(自嘲)와 성찰(省察)의 목소리가 높다.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회가 엮어 펴낸 책 <교육 불가능의 시대>³⁾가 바로 이런 우리들의 현실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불가능’은 말 그대로의 좌절의 언어가 아니라 희망을 담은 ‘래디컬’한 언어다. 이점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과연 교사로서 어떤 관점과 태도로서 ‘오늘의 교육’을 성찰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회학자 엄기호의 책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⁴⁾를 보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학교의 모습을 곧바로 꿰뚫어볼 수 있다.

3)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회 엮음, 교육 불가능의 시대, 2011. 교육공동체벗.

4) 엄기호,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2013. 따비.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수업 붕괴나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학교는 강제적인 생활의 공간이지만, 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위는 되지 못하는 것이 위기의 실체이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활발히 토론하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교무실은 침묵에 빠져 있다. 위기를 감지하고 그것을 공론화하려는 교사들은 오히려 불온시 된다. 공연한 분란을 일으키고 가뜩이나 피곤한 삶을 더 수고롭게 하는 ‘설치는 존재’들로 기피된다. 이 때문에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교사들의 삶은 더욱 분주해지고, 자칫 사고라도 벌어지면 ‘독박’을 쓰게 된다. 아무나 나설 수 없는 구조, 나서면 망하는 구조, 그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오늘의 학교는 ‘교육 불가능’을 사유하고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그냥 하루하루 갈등과 절망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학교교육은 아이들의 가슴에 잠재된 설렘과 열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잃었다. 교사들은 입시경쟁에서 살아남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교실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한다. 그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 갈수록 ‘겁쟁이’가 되어간다.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⁵⁾고 했다. 하여, 학교에 겁먹은 아이들은 학교를 떠난다. 덩달아 학부모도 ‘불안’해한다. 심지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고백한다. 그야말로 ‘영혼 없는 사회’에서 ‘교육 불가능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 절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간절하게 새로운 학교, 대안교육, 혁신학교, 미래형 학교 등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며 ‘설치는 존재’가 된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칭찬을 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꾸중을 듣기도 한다. 칭찬과 꾸중의 저울추가 같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지혜의 길, 사랑의 길은 외롭고 힘들 때가 많다. 이때 누군가가 ‘손 맞잡고 함께 가자’고 외친다면 얼마나 고맙겠는가. 특히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이 학교교육의 변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지금의 시대 상황과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미래 교육’, ‘행복교육’의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3. 관점과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등등. 이렇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

5)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공양희 옮김.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2005. 민들레.

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교육관, 세계관이 나온다. 말하자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탄생한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나온다. 결국 교육은, 또는 삶은 ‘관점과 태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생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를 조금만 달리해도 그다지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우리 어른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선부르게 판단하여 ‘문제아’나 ‘학교 부적응아’나 하면서 낙인찍고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어른들의 무지와 편견과 오해가 학생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다. 성찰적인 삶의 자세를 놓친 까닭이다.

어른들이 무심결에 내뱉는 이런 편견과 오해 때문에 갈수록 ‘부적응아’와 ‘문제아’들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교사나 학부모 처지에서 학생을 보지 말고 그 학생의 처지에서 바라보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던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적응’이라면, 차라리 사사건건 질문을 던지고 저항하는 ‘부적응’이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한 일 아니던가?

이 점에서 영국 서머힐학교 설립자 니일(Neill)의 메시지는 명쾌하다.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 남 탓이 아니라 곧 내 탓임을 절절하게 깨우치게 하는 말이다.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문제라고 인식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드러난 현상이나 결과부터 보지 말고 동기와 과정부터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면 그렇게 쉽게 사람을 분별하고 예단하고 문제라고 낙인찍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은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거나 어른들이 벌써 빚어놓은 문제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러니 어찌 한 아이들 두고 ‘부적응아’라는 말을 쉽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냥 ‘새로운 질문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쉽게 ‘문제아’라고 낙인찍을 수가 없다. 나는 그냥 ‘새로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온몸 낮추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교사, 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나날이 성장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요 행복한 교사다. 옳고 그름을 선불리 판단하지 말고 우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하자. 시시때때로 우리 삶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불안한 ‘꼰대’인가, 자존감 높은 ‘어른’인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것도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완전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다. 이 본능 때문에 인류는 진화하고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끊임없이 완전성에 이르고자 하니 과정에서 온갖 갈등과 불행이 싹트는 것이다. 이 사실만 망각하지 않아도 교원으로서 우리는 좀 더 의연하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동료 교원과 다양한 학부모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학교교육의 혁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눈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는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교사나 학부모들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분별하는 마음, 성적만으로 서열화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성찰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진정 길은 없는가?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아니다. 길은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어둠은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낮 한 자루로도 숲 속에 길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촛불 하나로도 큰방을 밝힐 수 있다.”⁶⁾

그렇다. 이대로 주저앉아 세상 탓, 제도 탓이나 하면서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다. 타인의 삶을 선불리 판단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의 관점과 태도부터 성찰하자.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배움과 성찰을 멈춘 어른들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어른들의 불안과 걱정이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한다. ‘관심과 사랑’으로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과 성찰을 멈출 수 없다. 성장이 멈춰버리면 ‘꼰대’가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않아야 비로소 ‘어른’이다. 우리는 불안한 꼰대가 되지 말고 자존감 높은 어른이 되자.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운 아이를 키운다. 꿈꾸는 어른이 꿈꾸는 아이를 길러낸다. 상상력이 풍부한 어른이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를 길러낸다. 행복한 어른이 행복한 아이를 길러낸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변화를 두려워 말자. 우리가 먼저 참 좋은 샘플이 되자.

6) 양희규.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1997. 내일을 여는 책. 책머리에서

5. 소중한 한 사람 : “사랑과 섬김의 교육”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3주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이다.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이끌어갔지만, 21세기 미래형 학교는 교육의 3주체가 대등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간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 더러는 각 주체들의 욕망과 무지로 인해 갈등과 좌절을 겪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의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

간디 선생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고 갈파했다.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다. 반철환 시인은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온전히 키워내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늘처럼 모시려는 교사의 마음가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온몸을 낮추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리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나날이 성장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엄격히 따져보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고정관념(固定觀念)’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無知)할 때가 많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불쑥불쑥 행한 일들 때문에 몸서리치도록 부끄러워해 본 사람은 안다. 그래서 중국의 노신(魯迅)은 ‘행이치난(行易知難)’이라고 했다. 멋모르고 행하기는 쉬워도 진정한 앎이란 지독히 어려운 문제이다. 소크라테스도 늘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다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논쟁의 결론은 늘 ‘아직 그것은 모른다.’였다. 결국 진정한 앎이란 무지(無知)에 대한 반복적인 고백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니 우리는时时때때로 ‘앎’에 속고 ‘이념’에 속고 산다.

인간이 이렇듯 무지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론이나 프로그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창조한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에 대한 맹신은 예수님도 부처님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성인들은 하나같이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강조했을 뿐이다. 사랑과 자비가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고 가르쳤다.

교육이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모시고 대접하는 방법을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는 문제의 해법을 사람에게서 찾고, 평범한 교사는 문제의 해법을 프로그램에서 찾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도 ‘사람’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훌륭한 교사는 자기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몸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 한 사람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

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망각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길은 ‘감동’과 ‘행복’으로 통한다. 교원으로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가슴이 따뜻해질 것이다. 가슴 따뜻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감동호르몬’을 잘 분비해낸다. 감동호르몬은 죽어가는 세포도 활성화시키고 행복감에 젖어들게 한다. 결국, 아이들을 매일같이 섬기면서 맞이하는 일이 곧 우리가 하루하루 ‘감동과 행복’을 창조하는 길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III. 한국 대안학교 정책의 흐름과 내용

1.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정책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대안교육 역사 초기의 대표적인 형태였다. 이 정책의 뿌리는 문민정부의 획기적인 교육개혁 정책인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개혁안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 방안의 하나로 고교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 대한 계획은 당시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중도탈락 학생’의 문제 때문에 1996년 10월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의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처음에는 중도탈락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이 거론되었지만, 그 당시 사립 대안학교들이 하나 둘 설립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들 대안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수정을 거쳐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7년에 ‘교교설립 준칙주의’를 발표했다. 이어서 199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넣어 법제화하였다. 이 조항은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01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를 위한 ‘특성화중학교’ 조항도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어디에도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라는 말은 찾을 수 없다.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대안교육’이란 명칭을 사용할 듯 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특성화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공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대안교육’이란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특성화학교’라는 이름은 원래 미국의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을 번역한 말인데 그 당시 교육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 중 하나로 기획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 일환으로 근대

산업사회에 맞춘 직업교육 학교인 상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와는 성격이 다른 후기산업사회(지식정보화사회)에 발맞춰 만화학교, 디자인학교, 요리학교, 미용학교 같은 직업 특성화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대안학교 법제화 문제도 동시에 맞물려 있었는데, 결국 두 가지 성격을 한꺼번에 묶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직업교육 특성화학교’로 지칭하고,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지칭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안학교’란 명칭은 처음부터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라 해도 뿌리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 보니 사람마다 제각각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가령, 처음부터 학교 부적응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고유한 이념이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대안학교도 있었는데, 일반 대중이 볼 때는 대안학교, 하면 모두가 다 ‘문제아 집합소’나 또 하나의 ‘특수학교’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것이다.

어쨌든, 마침내 1998년 3월, 당시 각종학교로 있었던 영산성지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였던 간디청소년학교, 천주교 재단의 양업고등학교, 원불교 재단의 화랑고등학교와 원경고등학교, 기독교 재단의 한빛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동시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인가를 받고 첫출발했다.

2. 위탁형 대안학교 정책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처음에 중도탈락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려 했던 계획을 보루하고, ‘사립 대안학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사립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지만 급증하는 중도탈락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1년에 ‘위탁형 대안학교’ 제도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학교가 맞지 않는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학습을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학과는 달리 원래 다니던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규 학교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안교육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대안교육 지원체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각 시도별 교육감이 위탁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장학활동과 운영비 보조 등 행정과 재정까지 지원하게 된다.

3. ‘대안학교법’에 따른 대안학교 정책

2003년 6월, 교육부는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안학교의 확대를 위해 체육장, 학교건물 등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설임대까지 허용하며 교육과정과 교원임용 등에 폭넓은 특례가 주어지는 각종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2003년 9월, 학력 인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할 것으로 정했다가 학력 인정에 대한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져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04년 6월경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8월 1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마침내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대안학교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정에 대안학교 조항을 추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신설한 것이다. 이 법에 명기된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법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대안교육 전문가들과 활동가, 교육부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행령을 다듬어갔으나, 끝내는 그동안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오던 현장교사와 경영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시행령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로 2007년 6월 28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처음 대안학교법이 통과될 때만 해도 기존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제도권으로 영입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재는 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학교는 몇 군데에 지나지 않았다. 이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작용하게 되자 정부는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으로 가닥을 잡고, 2009년 7월 31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고, 마침내 11월 5일에는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면 정부가 공교육의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대안학교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2021년 현재 각종학교 대안학교 50개 중에서 21개가 공립학교로 개교했다.

4.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운영

2008년 3월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대선 공약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이어서 학교폭력과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처하는 총체적인 대책을 내어 놓았는데, 이른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 Wee=We+Emotion+Education)이 그것이다.

특히,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등 위기학생을 선도하고, 진로개발과 잠재력 발현으로 ‘인적자원 유실방지 안전네트워크(safe-net) 구축 사업’을 일컬어지는 용어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친한친구교실(Wee Class) 운영 : 단위학교

단위학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지도를 위해 ‘친한 친구교실(Wee Class)’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학생의 감성과 문화에 걸맞게 ‘학생공감 상담실’을 설치(개선)한다.

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 운영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상담 및 치유 서비스 제공한다.

다) 장기 위탁교육센터(Wee School) 운영

장기간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 장기 위탁 서비스 제공한다.

- Wee Center에서 의뢰한 장기간의 상담. 치유가 필요한 학생
- 위탁학생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 학습지도 병행, 진로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5. ‘대안교육기관법’ 통과와 과제

2020년 12월 9일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통과로 현재 미(비)인가로 운영되고 있던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법은 학력 인정이나 재정 지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학력 인정이나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지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대안학교법’에 의한 대안학교는 ‘인가제’에 기초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등록제’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취학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라는 명칭을 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되고 있다. 학원의 등록보다는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등록제’란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 이 법안에 근거한 시행령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난항이 계속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연구> 내용이 공개되자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에서는 이 연구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행령을 만들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다. 등록 기준을 높이자니 미(비)인가 대안학교들은 등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기준을 낮추자니 각종 이상한 기관들이 대안학교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인가제’에 가까운 등록제’로 하고 싶고, 대안교육기관 쪽에서는 ‘신고제’에 가까운 등록제’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현재 미(비)인가 대안학교는 최소 4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시행령에서 ‘등록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 또다시 미(비)인가 대안학교 중 일부만 등록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여전히 미(비)인가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대안교육 진영의 학교

체제가 앞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학력 인정도, 재정 지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까다로운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며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법률의 통과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사립학교’는 사실상 공립학교와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이나 학교를 선택할 폭이 좁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등록되는 대안학교들이 증가하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합법적으로 더 폭넓게 보장해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대체제’가 아니라 ‘선도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도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가는 곳 정도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는 ‘대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일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법은 기존의 대안학교 관련 법률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안교육 현장은 또 하나 새로운 영역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 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와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중·고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 3(각종학교)에 근거한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법에 근거한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비)인가 미(비)등록 대안교육 시설 등으로 나뉘지게 되었다. 앞으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관련된 법을 일원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겪게 되는 혼선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IV. 새로운 학교, 대안학교 만들기의 실제

1. 2021년 현재 대안학교 현황

대안학교는 크게 보아 인가형 대안학교와 미인가형 대안학교로 나뉜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가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한 대안학교(각종학교)가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3월 현재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대안학교(각종학교)가 50개교(공립 21/사립29),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18개교(공립5/사립13),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가 25개교(공립 5/사립20) 다. 이렇듯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모두 93개교다. 이 중에서 공립이 31개교, 사립이 62개교다. 여기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통계에 잡을 수 없으나 적게는 400여 개교, 많게는 600여 개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 2021 인가 대안학교 현황 [93교 : 공립31교/ 사립62교]

구분	대안학교 (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유형별/ 학교급별 학교수(개)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21	29	5	13	5	20
	50		18		25	
	93개교(공립 31+사립 62)					

□ 2021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18교 : 공립5교/사립13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대구	한울안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강원	팔월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가창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가정중학교	공립	'17	춘천시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현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중앙기독교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공립	'18	함평군
					경남	상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대병중학교	사립	'21	합천군

□ 2021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25교 : 공립5교/사립20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대구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04	동구	전북	세인고등학교	사립	'99	완주군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00	강화군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99	무주군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99	광산구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09	김제시
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99	화성시		고산고등학교	공립	'18	완주군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02	수원시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98	영광군
	이우고등학교	사립	'03	성남시		한빛고등학교	사립	'98	담양군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06	안성시		한울고등학교	공립	'12	곡성군
강원	전인고등학교	사립	'05	춘천시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98	경주시
	팔월고등학교	사립	'06	홍천군		간디고등학교	사립	'98	산청군
	현천고등학교	공립	'14	횡성군	경남	합천평화고등학교	사립	'98	합천군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98	청주시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04	산청군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03	천안시		태봉고등학교	공립	'10	창원시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03	서천군					

□ 2021 대안학교(각종학교) [50교 : 공립21교/사립29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인가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인가 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고)	사립	'08	중구 신당동	강원	해밀학교(중)	사립	'18	홍천군 남면
	여명학교(고)	사립	'10	중구 남산동		노천초등학교(초)	공립	'19	홍천군 동면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 오류동	충북	글로벌선진학교 (중·고 통합)	사립	'10	음성군 원남면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고)	공립	'12	종로 송인동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고)	사립	'12	제천시 강제동
부산	송정중학교(중)	공립	'19	강서구 송정동		다다예술학교(초·중 통합)	사립	'17	청주시 상당구
대구	대구해울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공립	'18	대구 달서구		은어울중학교	공립	'17	진천군 문백면
						은어울고등학교	공립	'21	진천군 문백면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고)	사립	'11	연수 동춘동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아산시 염치읍
	인천해밀학교 (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 구월동		드림학교(고)	사립	'18	천안시 충절로
	인천한누리학교 (초·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 논현동		충남다사랑학교(고)	공립	'19	아산시 둔포면
광주	월광기독교학교(초)	사립	'14	서구 화정동	전남	월광기독교학교(중·고)	사립	'18	함평군 대동면
대전	새소리음악고등학교	사립	'11	서구 도마동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사립	'18	강진군 강진읍
	새소리음악중학교(중)	사립	'16	서구 도마동		이음학교	공립	'20	광양시 광양읍
울산	울산고운중학교	공립	'21	울주군 두서면	경북	송강고등학교	공립	'21	담양군 봉산면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초·중 통합)	사립	'08	고양시 덕양구		한동글로벌학교 (초·중·고 통합)	사립	'11	포항시 북구
	화요일아침예술학교 (고)	사립	'11	연천군 전곡읍		글로벌선진학교문경 (중·고 통합)	사립	'12	문경시 영순면
	쉼마기독교학교 (초·중·고 통합)	사립	'11	양주시 은현면		산자연중학교(중)	사립	'13	영천시 화북면
	새나라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용인시(휴교중)		나무와중학교(중)	사립	'13	영천시 대창면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이천시 율면		링컨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사립	'17	김천시 대덕면
	광성드림학교 (초·중·고 통합)	사립	'14	고양시 일산구	경남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사립	'17	경산시 자인면
	하늘꿈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사립	'15	성남시 수정구		경남꿈키움중학교(중)	공립	'14	진주시 이반성면
	중앙에듀학교 (중·고 통합)	사립	'18	용인시 수지구		지리산중학교(중)	사립	'14	하동군(휴교중)
	노비따스음악 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사립	'19	가평군 설악면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공립	'17	고성군 하일면
	군서미래국제 학교	공립	'21	시흥시 정왕동		밀양영화고등학교(고)	공립	'17	밀양시 상남면
						금곡무지개고등학교(고)	공립	'20	김해시 한림면
						거창연극고등학교(고)	공립	'20	거창군 위천면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공립	'21	남해군 창선면

2. 한국 대안교육 20년의 성찰

대안학교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여 간단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크게 보아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격리 학교’라는 관점이다. 말하자면 대안학교를 ‘문제아 수용소’ 정도로 보는 관점인데, 정부의 대안교육 정책도 이런 관점에 서 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대안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둘째, 대안학교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학교’라는 관점이다. 단순히 문제아 수용소가 아니라, 오히려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삶과 세상을 꿈꾸는 ‘꿈의 학교’, ‘삶의 학교’, ‘행복 학교’를 지향한다는 관점이다. 초기의 대안교육 운동가들은 대개 이 관점에 서 있다.

셋째, 대안학교는 특정 대상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며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귀족학교’라는 관점이다. 한 해 등록금이 수천만 원이라고 한다. 가령, 특정 종교를 가진 가정의 부유층의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음악, 미술, 외국어 교육 분야를 특성화시킨 대안학교들이 다.

요컨대, 대안학교는 좁은 의미로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교 중단 학생을 구제하는 차원의 학교임에는 틀림없다. 나아가 넓은 의미로 보면 대안교육은 교육본질 회복운동이며 새로운 학교 설립 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지난 20여년은 위의 두 가지 관점이 상호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공교육의 변화를 견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가받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혁신학교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희망의 징검돌’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셋째 관점으로 접근하는 대안학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대안교육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제 돈 많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은 입시학원 만들 듯이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부를 재창출하는데 달려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흐름이 전체 대안교육운동의 가치와 철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교육당국이 대안교육 관련 정책을 펴면서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그 사이에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고 애매해졌다는 점이다. 특성화고와 특성화중학교 체제의 대안학교와 각종학교의 대안학교가 함께 존재하면서 대안교육 관련 제도가 이중삼중으로 분산되어 혼란을 빚고 있다. 따라서 우선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어쨌든 대안학교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공교육의 변화를 견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가받은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는 ‘혁신학교’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대안학교는 공교육을 살리는 ‘희망 징검돌’ 역할

을 해왔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에 근거한 ‘각종학교 대안학교’가 생겨나면서 실제 등록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학교’도 하나 둘 생겨났다. 게다가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미(비)인가 대안학교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대안교육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인가받은 대안학교들은 ‘대안적인 삶’을 추구했던 초창기의 가치와 철학을 잊고 제도권 안에서 특혜를 누리며 야성을 잃은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냉혹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물론 준거집단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제도권 내의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하면 또 설움이 많다. 가령, 아직도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그 한 가지 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고교체제 개편’ 정책을 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2010년 6월 교육부는 <대안교육 종합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서 대안교육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며, 대안교육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이 계획이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특성화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폭이 20%로 제한되어있어서 실제적인 ‘특성화 교육’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비교

특성화중학교 교육과정의 한계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 중학교기본교육과정에 20%이내의 증감만 할 수 있기에 학교의 철학과 특색을 담아 내는 교과는 20%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음 ○ 교과의 핵심성취기준과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교육과정 재구성도 어려움이 있음	○ 보통교과 66단위만 이수하면 학교의 철학과 특색에 맞는 교과를 86단위 편성할 수 있음. ○ 그런데 대안교과는 교육과정편제에 있지 않아서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어려움. 지금까지는 관례에 의해 편성해 왔던 대안교과를 인정도서(교과서)도 없이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안교과를 담당하는 전문교사가 없고 보통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대안교과를 함께 수업하고 있음. ○ 대안교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교재개발이 필요함. ○ 보통교과의 교육과정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이 일을 책임감 있게 맡아서 강력하게 추진할 교육 관료가 필요한데, 교육부의 담당자들은 자주 바뀌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와중에 돈 많은 자본가들이 각종학교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등에 업고 또 하나의 입시학원과 유사한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초창기 대안교육 운동가들의 가치와 철학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의 대안교육 정책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대안학교의 설립 인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대안학교들에게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일삼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국교육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학교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안교육연대 소속의 대안학교들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대안교육 종합 발전방안>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대안학교들이 다시 20년, 30년 뒤의 미래를 옹골차게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한국 대안교육 새로운 20년의 과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대안교육 2.0 시대’ 또는 ‘후기 대안교육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한계를 넘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쟁겨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있는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받는 각종 교원연수(신임교사 연수, 1정 연수, 교감·교장 자격연수 등)에서 ‘대안교육의 이해’ 같은 내용을 필수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난 20년을 거치면서 초기의 부정적인 인식은 다소 해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안학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남아 있다. 대안학교는 무엇보다 ‘특정한 대상’을 특별하게 교육하는 ‘문제아 수용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안학교에서 이른바 문제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건, 그 아이들을 위한 특수한 교육을 실시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삭제하고 그저 문제아들도 잘 다니니, 대안학교는 ‘문제아를 위한 학교’나 또 하나의 ‘특수학교’로 보는 건 엄청난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우리부터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안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자처하는 학교는 당연히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은 교육, 대안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물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대안교육에서 ‘대안’이란 글자는 삭제해야 한다). 처음부터 수준별로 나누고 서열화하여 경쟁만 시키는 교육을 대안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철저하게 통합교육의 원리와 배움의 공동체 원리에 기초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차이를 차별하지 말고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우는 관계를 통해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버금가는 형태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교육과정만 과감하게 손질하여 운영한다면 많은 학

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대안학교가 달리 대안학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달리하는 학교가 대안학교이다.

셋째, 대안교육은 국가라는 공적기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공교육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을 직접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공립 대안학교를 하나 둘 설립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맞게 기존의 학교 구조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려는 중장기적인 ‘대안교육 종합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가령,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학교’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공룡처럼 커지고 있는 도시의 큰 학교들을 ‘작은 학교’ 몇 개씩으로 나누는 방안도 좋겠다. 사립학교를 지원하면서 대안학교로 전환시켜 다양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면 정부 재정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마을학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흔들리는 청소년들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와 돌봄 학교’ 개념의 새로운 대안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대안교육 현장에서 헌신할 교사를 키우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연수, 대안학교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등을 담당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대안학교의 질적인 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육철학을 갖춘 ‘준비된 교사’를 얼마나 많이 길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좋다.

사회 구조악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 구조악을 뛰어넘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 누구 말대로 ‘사람이 희망입이다.’ 학교 현장에 한정하여 말하면, ‘교사가 희망이다.’ 한 사람의 교사가 먼저 바뀌고, 한 사람의 교장이 먼저 바뀌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교육의 희망은 다시 싹틀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좋은 교사가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장인정신’이 투철한 ‘준비된 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10년이고, 20년이고 옆길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길만 묵묵히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다.

V. 맺는 말 : 모든 학교는 ‘행복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안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안학교’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좋은 학교, 행복한 학교만 있는 것이다. 일반학교, 혁신학교, 대안학교, 국립, 공립, 사립, 일류학교, 삼류학교 등등으로 나누고 분별하며 우열을 따지는 마음부터 졸업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아이들이 ‘행복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새로운 교육, 혁신교육, 대안교육, 미래교육을 꿈꾸는 사람이다.

허구한 날 제도 탓, 세상 탓이나 하면서 말잔치만 벌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일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상이 온통 흙탕물이라고 한탄하고만 있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내 자신에게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하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참 좋은 샘플이 되어야 한다. 여럿이 함께 걸어가면 새로운 길이 된다고 했다. 어둠을 타하는 것보다는 촛불 한 자루 밝히는 게 더 낫다고 했다.

바로 이런 정신, 이런 용기,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대안학교, 미래학교에 모여든 사람들이다. 이들과 함께 날마다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 나는 참 행복하다.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학교’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행복교육’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뼉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담쟁이 정신’으로 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참 좋은 샘플이 되자.”

ytj747@hanmail.net

[관리자/강의] 대안학교 운영 사례

: 이 시대의 학생 이해와 대안교육

우 남 주

강동중학교 교장

[관리자/강의] 대안학교 운영 사례
이 시대의 학생 이해와 대안교육

Why? 한 사람인가?

위기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

- 입시교육과 일제식 교육으로 일관하는 학교
- 학교폭력 만연과 악순환
- SNS를 통한 관계맺기, 왕따, 욕설, 패드립 등의 폐해
- 교권침해와 교칙위반 다반사
- 흡연, 음주, 폭행, 가출, 절도, 오토바이무법질주
- 휴대폰, 게임, 도박 중독으로 탈출구를 찾는 아이들

위기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

기존의 공교육 내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체계의 미흡

-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청소년보호기관/쉼터, Wee클래스, Wee센터 등의 상담/지원의 한계와 부족한 돌봄
- 위기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지도 역량 부족
- 위기아이들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위기 학생 사례

사례 1 : 반복되는 거짓말과 과시욕

다른 학생의 돈, 담배, 옷, 신발 ➡ 무단사용, 갈취, 절도

사례 2 : 게임, 도박, 사채놀이

우리 아이들과 그 주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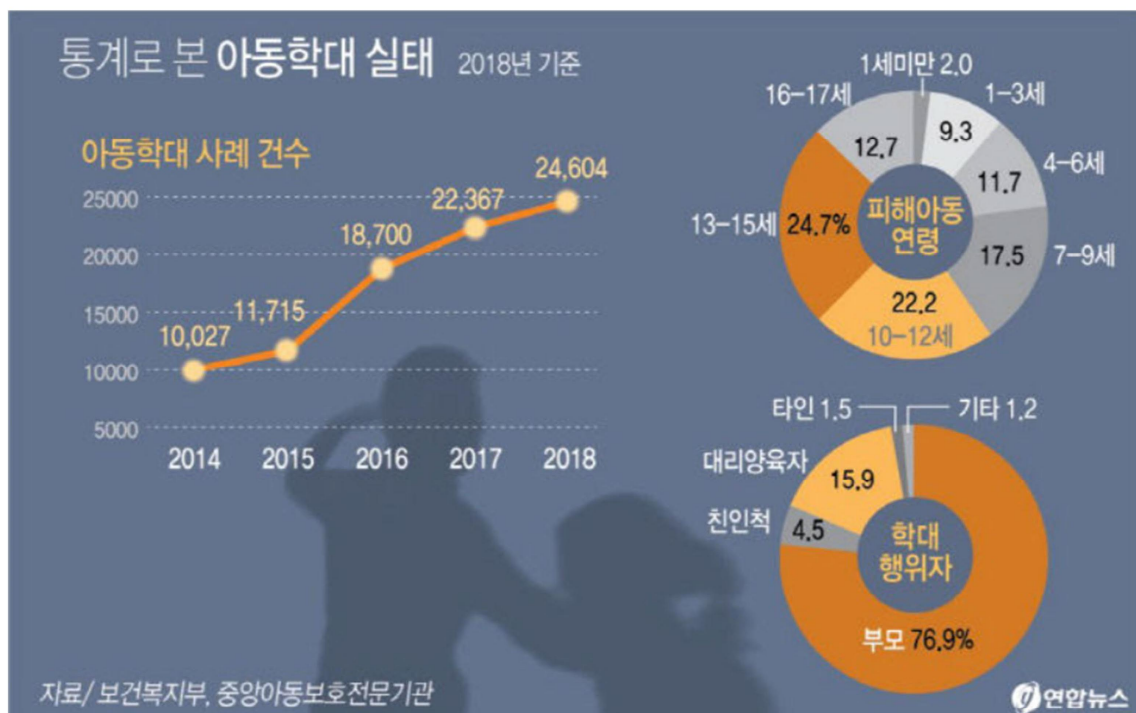
ADHD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

-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 소음, 조명 등 어지러움으로 가득한 생태환경
- 방치, 학대, 분리불안, 발달 트라우마 장애
- TV, PC, 휴대폰 등 전자파에 둘러싸여 지냄
- 머리에 열이 가득한 아이들
- 운동부족, 인스턴트 식품 및 육류 과대 섭취

우리 아이들과 그 주변 환경

무너진 가정과 그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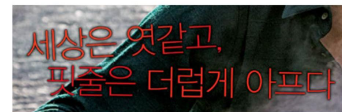
- 올바르게 전수되지 못한 가정 풍토
- 대를 이어온 가정의 쓴 뿌리
-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
- 부모의 욕심에 의해 강요당하는 아이들
- 맞벌이시대 방치와 같은 돌봄
- 애착 손상과 멍드는 아이들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정서적 외로움

가족의 두 얼굴



영화 <동파리> 포스터 일부

신분 질서 사회 : 양반 VS 상놈

일제시대 : 우리나라를 송두리채 삼킨 폭력

해방, 국가혼란과 6.25동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전 국민의 몸부림

가족,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 하는 사회

가정교육, 밥상머리교육, 가족대화 사라짐

애착의 중요성

그러나 위험한 정책들

간난아기의 뇌 : 1,000억개의 신경세포,
50조의 시냅스



3년동안

1,000억의 만제곱 이상 증가

$(100,000,000,000)^{10,000}$

우리 아이들과 그 주변 환경

정이 그리운 아이들

- 그간 누구에게도 정을 받지 못함
- 밤에 혼자서는 자지 못함
- 늘 신체접촉이 있어야 편안함
-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 속에서 인정받기 원함
- 흡연, 음주와 비행도 소속감을 느끼기 위함

우리 아이들과 그 주변 환경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로 비유되는 아이들

- 장난의 한계를 모름
- 뒤를 생각지 않음
- 자신의 요구만 끊임없이 내어 놓음
- 자신이 한 일을 곧 잊어버림
-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판단하지 못함
-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살려야 한다!

그래도 살려야 한다!

-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자!
-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자!
- 사랑의 결핍을 채우고, 바로 설 수 있게!
-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필요한 교육활동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찾으며,
약속을 세워주고, 미래를 일구어 가는 교육!
인성 및 예절 교육 등 ‘삶의 기술’ 전수.
학생의 미래를 개척하는 진로 교육.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활동.
개인 희망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과 방과후 교육 운영.

울산두남중고의 교육활동



교육중점(LOVE)

- 사랑 :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기른다.(Lovely Persons)
- 꿈 : 미래의 희망을 품고 현실화하는 사람을 기른다.(On dreaming Persons)
- 가치 : 나, 우리, 사회의 소중함을 가꾸는 사람을 기른다.(Valuable Persons)
- 능력 : 창의력과 실용성을 지닌 실력있는 사람을 기른다.(Enabling Persons)

『DU-NA』프로그램

- 『DU-NA』프로그램은 울산두남중고등학교의 첫 자인 <두>의 영어 철자 ‘DU’와 <둥지>를 뜻하는 ‘Nest’와 <활동>을 뜻하는 ‘Activity’의 첫 자를 따서 만든 용어

1 『DU-NA』 동지 틀기

가 『DU-NA』 동지 환경 조성

심리 자유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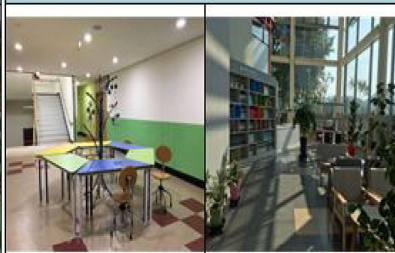
다목적실, 멘탈케어, 심리상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



DUNA FARM



상상터.감성이야기터(북카페)



꿈·끼의 공간

계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노래방, VR체험실 등



1 『DU-NA』 동지 틀기

나 대안교육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직무 연수



커뮤니케이션 연수



감정조절 활용 연수



감성 리더십 함양 연수



교사 소모임 활동

다 대안교육과 성장의 『다살림 공동체』 구축

『두남 다모임 시간』 운영

1. 시간 : 매주 월(4교시), 화~수(1교시), 금(5교시)
2. 대상 : 전교생 및 전교사
3. 내용 : 다살림 체조, 생활톡, 다놀자, 두바시, 다노래, 두남 아이돌 등

『두남 아침 다모임』 장면



라 『DU-NA』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 기관과의 MOU 체결

2017년 ~ 2019년 학성동물병원 외 10개 기관과 MOU 체결 등
교육 네트워크 연결



2 체험 중심의 배움 활동 『DU-NA』

가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다양한 대안교과 개설

대안교과 수업 장면



2 체험 중심의 배움 활동 『DU-NA』

나 사제동행 『DU-NA』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DU-NA』 체험활동 모습



2 체험 중심의 배움 활동 「DU-NA」

다 활동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활동 장면



2 체험 중심의 배움 활동 「DU-NA」

라 학기말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학기말 특별 프로그램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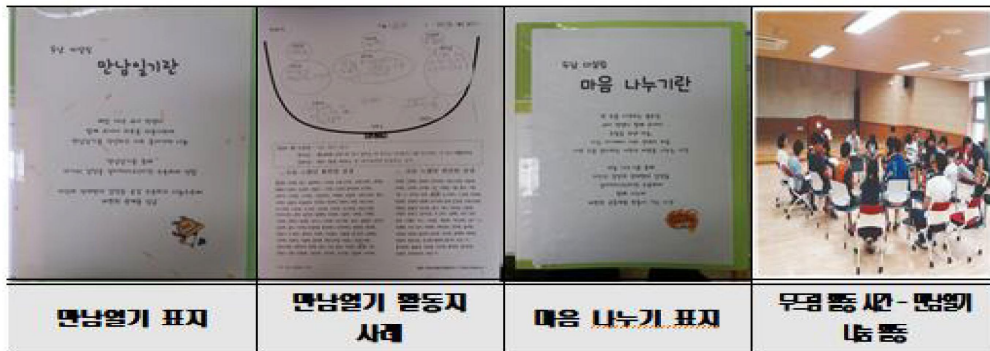


3 성장과 비전을 꿈꾸는 'DU-NA'

가 『만남』과 『치유』를 통한 마음 보살피기

‘만남일기’와 ‘마음나누기’로 자아 마주보기

- (1) 시간 : 매일 하루 일과 후 두드림 시간(20:00~20:50)
- (2) 대상 :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리 실시
- (3) 방법 : ‘만남일기’ 작성 -> ‘마음나누기’ 활동



3 성장과 비전을 꿈꾸는 'DU-NA'

가 『만남』과 『치유』를 통한 마음 보살피기



3 성장과 비전을 꿈꾸는 'DU-NA'

나 『성장』을 통한 마음 키우기

자아성장 프로젝트 활동 장면



3 성장과 비전을 꿈꾸는 'DU-NA'

나 『성장』을 통한 마음 키우기

해외 성장여행 프로젝트(몽골)

<2018년>

- (1) 일시 : 2018. 9. 5. ~ 9. 14.(9박 10일)
- (2) 대상 : 고등학생 12명, 인솔교사 4명, 총 16명

<2019년>

- (1) 일시 : 2019. 8. 30. ~ 9. 8.(9박 10일)
- (2) 대상 : 중학생 11명, 인솔교사 7명, 총 18명



3 성장과 비전을 꿈꾸는 「DU-NA」

다 진로탐색을 통한 『비전』 꿈꾸기

『청소년 비즈쿨』 활동 모습



3 성장과 비전을 꿈꾸는 「DU-NA」

다 진로탐색을 통한 『비전』 꿈꾸기

PL(Productive Learning) 프로그램 운영



PL(Productive Learning) 프로그램

- 독일 IPLE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교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특색 진로교육 프로그램
- 생산 직업 현장과 연결된 교육
- 학생 개별적이고 특화된 진로체험으로 학생의 장래를 연결

<대상과 방법>

- 대상 : 위탁생을 제외한 고등학생으로 참여 희망자
- 참여 : 월~수(생산현장), 목~금(학교수업), 기간별 참여 가능

<활동사항>

자동차 정비, 중장비 운전, 장례지도사 체험, 태권도사범 등

3 성장과 비전을 꿈꾸는 'DU-NA'

다 진로탐색을 통한 『비전』 꿈꾸기

학교기업을 통한 능력을 갖춘 사회인 양성

- (1) 매주 '창업아이템', '노작과자연' 교과수업을 통하여 천연제품 및 농산물 생산 및 판매
- (2) 매주 화요일 오전 지역주민 천연비누 및 화장품 만들기 수업 진행
- (3) 방과후활동 '천연DIY반', '트윅공예반' 을 통하여 제품 생산
- (4) 천연비누 및 화장품 강사자격증반 운영

학교기업 활동 모습



IV. 본교 학생들의 행동변화 사례

- ☐ 게임중독, 휴대폰 중독학생의 경우
증상 대폭개선(지속적인 지도 및 환경적 영향
(학교규율 및 기숙사생활))
- ☐ 무단결석, 무단지각생의 경우
기숙사 생활로 인한 출결관리
- ☐ 흡연학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로 흡연량 대폭 감소

IV. 본교 학생들의 행동변화 사례

- ☐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교부적응 학생 경우
정규교과 이외 다양한 체험활동 및 대안교과 수업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 ☐ 학교폭력 및 분노조절 학생 경우
사제 간 공감대 형성 및 관계개선을 우선시 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증세 완화 및 개선
- ☐ ADHD 등 행동조정이 안되는 학생경우
심리적 안정을 주고, 배려와 관심을 쏟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증세완화 및 개선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들

60 ~ 80 $\Rightarrow$ 80 ~ 100

↓

60 ~ 80

VS

-20 ~ 0 $\Rightarrow$ 20 ~ 50

↓

-200 ~ 0

공교육과 우리 사회가 할 일

- 위기 학생 조기 발굴과 치유.보호
-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사랑이 넘쳐야, 바로서야, 교사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 학생이해에 대한 밀도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 정치, 숫자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위기학생 지원
- 가정을 세워주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
- 결혼예비학교, 신혼부부학교, 아버지교실 등 개설 운영

위기의 아이들,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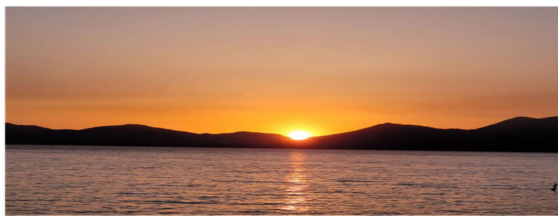
[교원/워크숍]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교육과정 사례

하 태 종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교무부장



학교 소개



남해 울도리의 작은 학교, 민간형 위탁 대안학교, 각종학교
2021년 3월 개교 학생 15명, 교원 6명 (교직원 17명)
노을 지는 바다가 보이는 학교

학교 비전

배움과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꿈의 학교

학생들의 삶을 교육으로 만드는 삶의 학교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사랑과 소통의 행복한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교육과정

삶 자체가 교육인 창조,현장,여행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보물 찾기, 내 안의 보물

★ 나 _ 내 안의 보물

"옆을 볼 자유 속에서 내 길을 찾아요"

"내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요"



교육과정과 보물 찾기, 내 안의 보물

기본적 인문, 자연, 예술 소양을 기르는 교과 편성

삶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인문학, 연극, 실용음악, 영화, 목공, 제과제빵, 요리
(그 밖에도 학생 희망에 따른 교과 편성)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프로젝트학습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자기 관심사, 흥미에 따라 주제를
정해서 인턴십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과정과 보물 찾기, 관계의 보물

★ 우리 _ 관계의 보물

"서로 귀 기울여 듣는 관계가 되어요"

"민주적인 관계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요"

교육과정과 보물 찾기, 관계의 보물

회복적 생활교육과 상담

학생자치, 공동체회의, 주열기

삶과 철학 수업 등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과 보물 찾기, 지구 마을의 보물

★ 지구 마을 _세상의 보물

"아름다운 바다에서 마음껏 놀자, 배우자"

"지구 마을에는 배울 게 많아요, 여행을 떠나요"



교육과정과 보물 찾기, 지구마을의 보물

해양수업(생존수영, 스킨스쿠버 자격증)

이동학습(해외), 주제통합기행 운영

초청강연 실시

지구 시민으로 살아가기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생태전환교육, 환경 수업 편성, 남해 바다 지키기 프로젝
트, 적정기술, 작은 집 짓기, 아시아 평화 여행 등)

보물 찾기_하루 일정(시간표)

• 남해보물섬고등학교 •							
1학기 시간표							
교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7:00	통교	기상				
	7:50~8:20		아침식사				
	8:30~8:40		아침모임				
1	8:50~9:40		수학	환경	세계시민	교양심리	
2	9:50~10:40				국어	국어	
3	10:50~11:40	통교	연극	진로와자립 목공 음악	공동체회의 /봉사	영어	
4	11:50~12:40						
	12:40~13:40	점심시간					
5	13:40~14:30	주말기	독서와토론	진로	공정여행	하교	
6	14:40~15:30	삶과철학	몸짓과예술 춤	LTI	미술		
7	15:40~16:30	봉사	사진과영상				
	16:30~17:00	휴식					
	17:00~18:00	저녁식사					
8	18:00~18:50	동아리	방과후	방과후	자기주제 학습		
9	19:00~19:50	동아리	방과후	방과후	자기주제 학습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한 명 한 명 귀기울이고
천천히 부드럽게 함께 배우며
자기 속도대로 가능성을 열어가기

개인 서가와 희망도서

보물 _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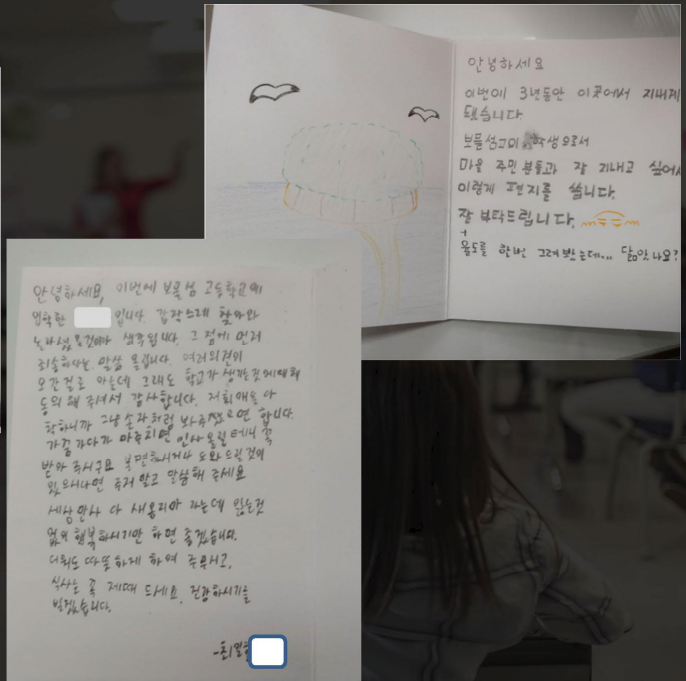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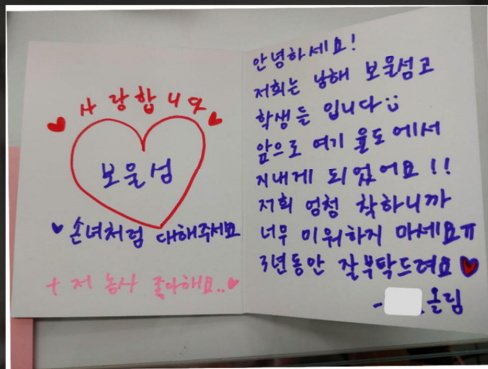
보물2 _ 마을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오니 막아야 한다. ”

“ 도둑질을 하거나 행패를 부릴 수 있다. ”



보물_3 보물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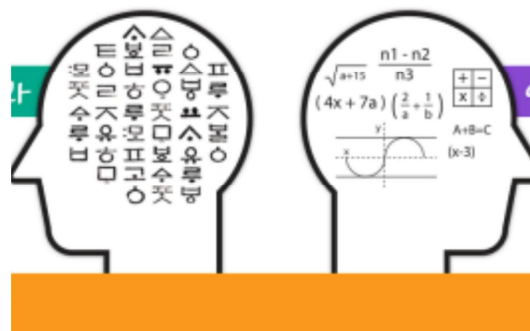
수학도 못하는애가 코딩이 되는이유요?

저도 사실 궁금하긴한데

코드짤때는 약간의 상상력과
많은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코딩은 나를 이과에 향목에 속하며, 제 취미와 외향에 비해
저는 이과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미이기도 하고 수
학을 못하는 사람중 한명임에도 코딩을 해보고있습니다.
물론 저는 통계적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 내거나, ai 연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고차원의 코딩이 아니라서 수학을
필요로 하는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취미지 깊게
파고들 생각도 없기는 한데, 여하튼 구현원리 보고, 세로게
배운 코드로 대체가 가능한지와, 물을 섞을 수 있는지, 결과
물은 흰지, 작은 걸로 더 큰 결과를 내게 하던가, 내가 행본
간단한 카드게임을 구현할때의 핵심 규칙들을 적어내립
니다. 코드는 숫자가 아니고 영어거든요, 그 못 만 잘 이해
해도, 조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고위코딩은 다르
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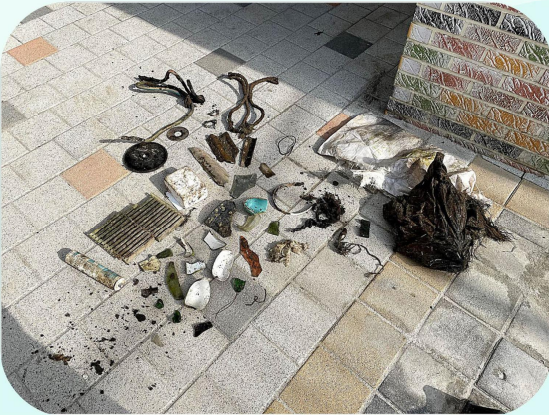
달라도 너무 다른 너와 나



자연과 미술활동



주운 쓰레기들



드디어 감자수확!

6월 23일 감자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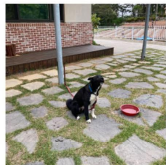


감자를 수확할 때 얼마나 많이 나올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감자들이 많이 자라지 않았고 벌레가 먹은 것
도 많고 중간에 땅이파져서 감자가 파랗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감자가 몇개 없어서 아쉬웠다.
노력 한 만큼 감자가 나와주지 않아서 슬펐다.
하지만 아쉬운만큼 또다시 감자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진의의 강아지 훈련기록



이름: 덕구
나이: 4개월
훈련 내용: 앉기훈련
훈련일: 2021.04.28

훈련 내용

- 덕구는 앉아 라고 했을때 앉아라는 것을 몰라서 앉는 연습이 필요 했다 그래서 간식을 이용하여 앉는 연습을 시켰다 아직 어린 아이라서 간식을 이용해도 잘 앉지 못 했지만 할 수록 앉는 연습이 됐다 덕구는 앉는 것 외에도 칭기, 기다리기 등 많은 훈련을 통해 조금 더 나은 강아지가 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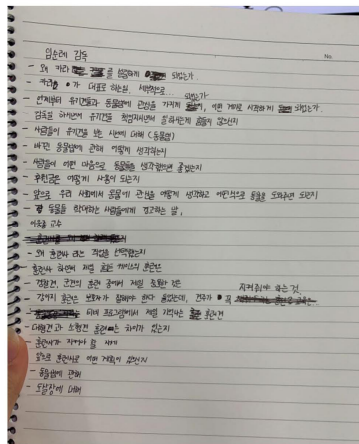
훈련을 통해 느낀점

훈련을 하고나서 더 많은 강아지들 훈련시켜 보고 싶었고 앞으로 덕구를 위해 많은 훈련을 통해 덕구가 조금 더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많은 공부를 통해 더 좋은 훈련사의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채연이네 덕구 앉아 훈련을 했을 때

임순례 감독님과 이웅중 교수님에게 질문 만들어 보기







교육과정의 고민_ 학생 내면의 보물을 찾아서

LTI

= Learning Through Internship,
(인턴십을 통한 배움)

Learning Through Interest
(흥미·관심을 통한 배움)

= 학생 저마다의 흥미, 관심에 따라
학교 밖 현장에 나가
인턴십을 하거나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배움을 얻는 학습,

코로나 시대 LTI?

교육과정의 고민_ 단순 체험을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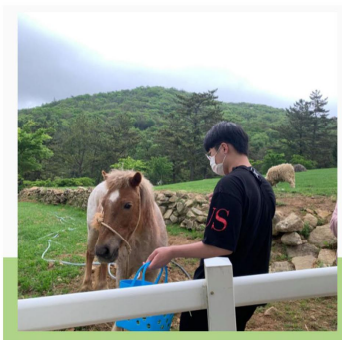
공정여행 준비



장소 - 양마르프 언덕, 독일마을, 상주 은모래배치
 방법 - 인터뷰, 사진/영상 촬영, 모래 수집
 준비 과정 - 양마르프 언덕 조사
 - 독일마을 정삼식사 식당 알아보기,
 - 인터뷰 질문 미리 정하기

주제
- 다양한 동물 탐구

목적
-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기
- 동물 관찰하기
(보더클리 위주)
- 해수욕장 지질 비교



남해 여행 프로젝트 학습



여행 준비 (3~4월)



주제여행 & 자유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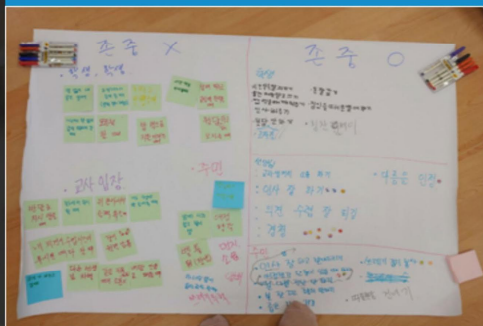
바래길 걷기

주제 여행 & 자유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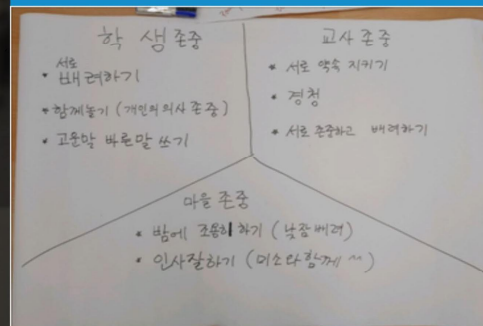


교육과정의 고민_ 작은 학교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마음나누기 중점



회복적 서클 만장일치제



교육과정의 고민_ 교과 본질을 찾는 질 높은 수업

주제 탐구 중심의 활동, 협동, 표현이 있는 수업



고맙습니다



남해에는 웃는 고래와
푸른바다거북도 살아요



**[관리자/워크숍]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소통 전략**
: 공교육 속의 대안교육 실천 사례 나누기

여 태 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소통 전략

-공교육 속의 대안교육 실천 사례 나누기-

여 태 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1. 여는 말 :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자!

공립 대안학교인 창원 태봉고등학교의 교훈이다. 나는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서 4년을 지내면서 일반학교처럼 교화(校花)나 교목(校木)도 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교가(校歌)도 만들지 않았다. 사실 내심으로는 교훈도 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훈 정도는 하나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선배 선생님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여러 동료 선생님들과 머리 맞대고 고심하여 교훈이랍시고 만들어 내건 말이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자!’다. 그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교훈을 참 잘 정했다 싶다.

그렇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기! 줄여서 ‘배움과 나눔’이다. 나는 교사로서 30년 넘게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배움과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또 이러한 삶의 관점과 태도를 길러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다.

첫걸음을 어떻게 떼느냐에 따라서 뒤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달라진다. 태봉고는 지금까지 3대 교장이 부임했는데 아직도 교화나 교목, 교가가 없는 학교다. 굳이 이런 상징을 만들지 않아도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 같은 일도 곰곰이 다시 따져보고 새롭게 시도해보려는 노력이 바로 ‘혁신’의 출발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다 아는 일반화된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보려는 일들이 ‘혁신’의 시작이다.

2. 코로나 이후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삶을 위한 교육 운동’

우리는 어떤 가치와 철학, 어떤 관점과 태도로서 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것인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대안교육운동, 즉 삶을 위한 교육 운동은 생태주의 교육철학에 기반을 두고 문명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미래 교육을 주창해왔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에서 가장 독하고 위험한 바이러스가 인간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성장과 개발을 외치면서 살아왔던 결과가 오늘의 코로나 시대 위기를 초래했다는 깊은 성찰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탐욕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

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위기와 환란이라고 성찰하고 있다. 변화는 성찰에서부터 시작한다. 성찰 없는 대안은 대안이 아니다. 성찰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지금 당면한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진단하지만, 제일 크게 작용하는 원인은 바로 ‘기후위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후위기’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해답을 찾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 일은 학교에서부터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들이 배신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래세대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계속 실망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스웨덴의 18세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분노와 외침이다. 우리는 이 외침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천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바로 툰베리와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가진 세대일 것이다. 어쩌면 이들이 환란에 빠진 우리 지구를 살리는 지혜를 쏟아낼 것이라고 믿는다.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어느 교수님은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꽃들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듯, 소리도 없이 곡식이 익듯, 변화가 홀연히 찾아오게 하라!”고 외쳤다. 이렇듯 삶이 곧 교육이고, 교육이 곧 삶이다. 이런 관점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찾아서 곧바로 일상의 삶이 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다. 이처럼 ‘삶을 위한 교육운동’이 바로 대안교육운동이요, 전환교육운동이다. 이제는 이런 운동이 개별 학교단위가 아니라 시도교육청 단위로, 국가적인 단위로, 나아가 세계가 연대하는 새로운 교육 운동으로 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교육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여기저기서 매일같이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다. 많은 말의 성찬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평화와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세계시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일이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은 의외로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다. 그것은 편리를 쫓지 않고 불편을 감당한다는 각오와 단순 소박하게 살겠다는 다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일이 개별적인 실천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끝내 죽어가는 지구별을 살려낼 수가 없을 것이다. 연대하고 또 연대하여 “한 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해야 이 지구별 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안교육 운동가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조장하는 자본주의의 소비주의 문화에 반기를 들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삼라만상 생태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조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애쓴다. 만민평등과 인류평화의 구현이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여기고,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지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학교교육이 단순히 상급 학교나 일류대학 진학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공립 대안 태봉고 이야기 : “공교육을 살리는 희망 징검돌”

태봉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마을에 있다. 폐교된 태봉초등학교 옛터에서 2010년 3월에 출범한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다.

태봉고의 비전은 “학교를 넘어선 학교, 사랑과 배움의 공동체”다. 교육목표는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사람 육성”이다. 학교를 넘어선 학교와 배움의 공동체 원리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학교모델을 반듯하게 만드는 일이 태봉고등학교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이다.

‘공립 대안’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태봉고는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범생이와 날라리, 잘사는 집 아이와 못사는 집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와 신체 건강한 아이가 골고루 섞여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학교’다. 그런 점에서 태봉고는 기존의 사립형 대안학교나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르다.

태봉고는 “교육의 본질은 우정을 싹트게 하는 것”이라는 이반 일리치의 말을 인용하며 학교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기와 다른 존재를 상대하는 법을 배우며 우정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봉고는 바다를 찌지 않게 하는 ‘3퍼센트의 소금 같은 학교’를 꿈꾼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지닌 3퍼센트의 소금 덕분에 찌지 않는 것처럼 태봉고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바다를 찌지 않게 하는 3퍼센트의 소금을 지향한다.

특히, 태봉고는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s)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심어주고 꿈과 감성을 일깨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직역하면 ‘인턴십을 통한 학습’ 정도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인턴십’ 자체가 아니라 그 인턴십을 ‘통해 학습한다’라는 점이다. 단순한 직업 체험을 넘어 배움의 기쁨을 찾아가는 학습 원리다. 미래형 학교는 학교 안에서만 배움을 찾지는 않는다. 학교 밖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 그래서 ‘학교를 넘어선 학교’를 비전으로 삼았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의 공립 대안학교인 메트스쿨의 성공 사례에서 차용했다. 기본 철학은 ‘한 번에 한 아이씩(One kid at a time)’이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추는 개별화 맞춤형교육이다. 아이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학교 밖 멘토를 찾아가 배우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난 뒤 학교 밖에 있는 멘토를 찾아 마산이나 창원 시내에 나간다. 딱히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기만의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은 학교 안의 ‘길잡이 교사(advisor)’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학교 밖의 ‘사회길잡이 교사(mentor)’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배움을 이어가는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일찍부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6시간 이상씩 갖게 된다. 실제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셈이다. 이런 LTI에는 5가지 학습 목표가 있어요. ‘경험적 사고력’, ‘수리적 사고력’, ‘사회학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자는 게 그것이다.

태봉고의 비전 중 또 하나가 ‘사랑과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다. ‘배움의 공동체’라는 말 앞에 ‘사랑’이란 말을 붙였다. 결국, 교육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신념을 표현하고 싶어서다.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와 양질의 배움을 보장하자. 서로 배우는 관계를 통해 깨달아가자. 가르치는 전문가보다 배우는 전문가가 되자. 배우는 교사가 아름답다. 어떻게 가르쳤는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멈추는가를 보자. 우리 학교 최고의 자량은 공부하는 교사다!”

배움의 공동체의 기본철학과 교육원리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활동중심, 협동중심, 표현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줄이면서 경청하기, 연결 짓기, 되돌리기를 반복하며 아이들을 배움의 즐거움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교 이후 태봉고 교사들은 매주 돌아가며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사례연구회를 통해 열정적인 교사문화를 만들어왔다. 연간 4회씩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수업사례연구회를 열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태봉고 수업에 참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경남지역 선생님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배움의 공동체 공개수업에 참여했다.

어쨌든, 대안학교는 ‘문제아 집합소’라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태봉고는 이런 편견을 넘어 누군가는 꼭 가야만 하는 길이기 그 길을 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어왔다. 당연히 이 길은 많이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뼀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하자는 ‘담쟁이 정신’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함께 가자 우리’와 ‘담쟁이 정신’이 태봉고가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태봉고는 경남교육의 새로운 창 하나를 열었고, 한국교육사에서 공립 대안학교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고, ‘공교육을 살리는 희망 징검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남해금산 교육마을 이야기 : 상주중학교의 변화와 혁신 사례

넓은 의미로 보면, 대안교육 운동의 방향과 목표는 처음부터 ‘문명의 대전환’에 있었다고 본다. 초창기 대안교육을 주창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생태주의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도 대안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흔들릴 수는 없다. 오히려 시대를 앞서 생태주의 교육철학과 가치를 실천해왔다는 점에서 대안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 실천의 한 갈래가 마을교육 공동체 회복에 있다.

보물섬 남해에는 독일마을과 미국마을이 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섬에 ‘교육마을’을 만들고 싶다. 아니, 남해군 전체를 ‘교육공화국’으로 만들고 싶다. 꽤 오래전부터 나는 이런 꿈을 꾸어왔다. 다들 버리고 떠나는 농촌으로 돌아가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새로운 깃발 하나 꽂고 내 삶의 열정을 온전히 다 쏟아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행복한 교육마을’ 하나 만들고 싶은 꿈 말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마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다. 인도의 간디 선생도 인간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마을자치(village swaraj)’라고 보았다. 그런 이상사회의 모습을 담아 펴낸 책이 바로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다. 간디는 이 책에서 근대 산업사회의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준 인류의 행복이란 결국 허망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한다.

벌써 거의 한 세기 전부터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외친 간디 선생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해야 사라져가는 ‘농촌 마을’을 되살려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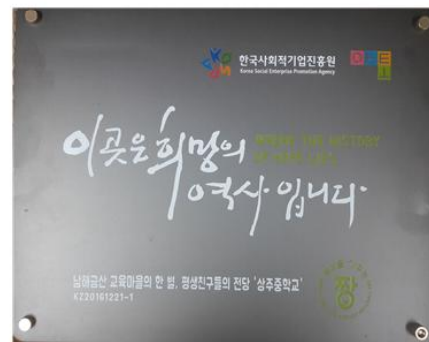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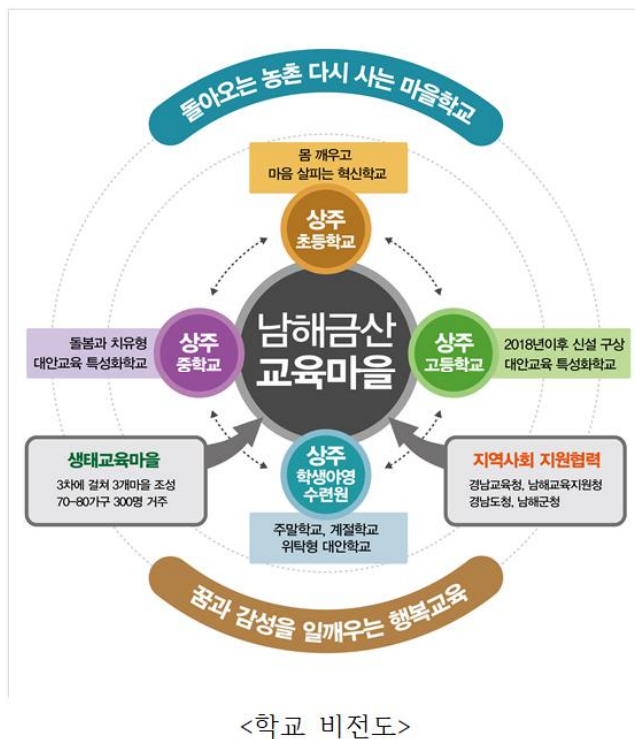
오늘의 학교가 불행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중 하나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 지역 학교가 하나둘 사라지고 도회지 학교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농촌 학교를 되살리고 도시 학교를 작게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처음으로 <참좋은 작은학교>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104개교의 초, 중, 고가 응모하여 최종 15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상주중학교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상주중학교는 2013년 당시 농어촌 인구 격감으로 3학급 전교생 25명인 학교였는데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노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본교에 2014년 3월 부임하자마자 아래 그림과 같은 <남해금산 교육마을> 비전도를 크게 만들어 교장실(교육사랑방)에 붙였다. 그리고 전체 구성원들에게 호소했다.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와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담쟁이 정신’으로 ‘한 뼉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학교 비전도’를 바라보며 꿈과 의지를 다졌다. 간절하고 절실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마침내 기적 같

은 일이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했다.

<남해금산 교육마을>의 꿈은 단순히 상주중학교 하나 되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주초등학교도 되살리고, 문 닫은지 오래된 상주학생야영수련원도 되살리고, 나아가 2018년 이후 상주고등학교까지 설립하자는 큰 그림이다. 그리하여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세상을 가꾸는 짱 인증 현판>

교육 때문에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남해로 초대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 남해대교와 창선대교만 건너면 남해의 어떤 학교에서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행복한 교육도시’ 남해를 상상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소도(蘇塗), 교육해방구, 교육공화국을 여기 남해 땅에 꼭 세우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런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2016년 12월에는 청소년 인류문화 프로젝트 동아리 ‘세상을 가꾸는 짱’(리더 임태인)에서 “남해금산 교육마을의 한 별, 평생 친구들의 전당 ‘상주중학교’ 이곳은 희망의 역사입니다”라는 현판을 걸어주었다.

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상주중학교는 ①배움과 성찰에 목이 마른 ‘교사문화’ 만들기, ②만남과 기다림으로 가슴 설레는 ‘학생문화’ 만들기, ③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문화’ 만들기, ④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학교’ 만들기, ⑤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로 ‘혁신 방향’을 설정하여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비전 이행 첫걸음으로, 본교는 2016년 3월 경남 최초의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하여 새롭게 출범한 이후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남해금산 교육마을’의 꿈은 7년이 지난 지금 하나하나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갈수록 상주중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높아지고 귀촌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어 최근 지역언론을 통해 “남해 상주가 꿈틀거린다, 교육마을 공동체가 꽃 핀다.”(남해시대. 2019.7.18)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전국에서 30가구 넘는 학부모들이 상주면으로 이사를 들어왔다. 2021년 3월 올해만 해도 상주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은 23명이다. 이 학부모들과 상주중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돼 2017년 4월 ‘연대와 공존’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남해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창립 3년 만에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2019년에는 경남도지사 표창장,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상주중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상주학원은 2016년 12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자로 지정받았다. 상주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비전 선언이 ‘남해보물섬고등학교’로 화답 받은 셈이다.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올해 3월 개교를 했다.

상주중학교가 살아나면서 덩달아 상주초등학교도 살아나고 있다. 상주초 재학생은 상주중 입학전형에서 우선 선발대상자이기 때문에 상주중 입학을 위해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비전대로 상주초는 2018년 경남교육청의 행복학교(혁신학교)로 지정받아 나날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경남도-남해군-경남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상주초가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의 비전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

상주학생야영수련원은 2015년 10월부터 본교가 임대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운영해오다가 2019년 6월부터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판타지촌을 꿈꾸는 청년 농부 사회적기업 ‘팜프라(Farmfra)’을 불러들여 새로운 삶터로 제공하여,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의 비전을 이행하고 있다.

‘생태교육마을’의 계획은 최근 남해군청에서 ‘남해상주 보물섬인생학교’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첫발을 내디뎠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물섬인생학교’가 대안교육문화센터를 겸하면서 새로운 생태교육마을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2023년까지 ‘남해금산 교육마을’에 대한 큰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 부록 : 토론 자료

공교육 속에서 대안교육, 어떻게 만들어갈까?

□ 태봉고는 설립 당시에는 이른바 학교 부적응아 중심의 학교로 만들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골고루 섞어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바람에 선발 방침이 다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 제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2009년 학교 설립 T/F팀 팀장이었던 김용택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제 주장에 동의해주셨지요. 일반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관료들은 문제아나 부적응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대안학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 중에는 실제 현장경험이 전무하거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부터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학생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과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아, 날라리, 꼴통, 학교 부적응아 같은 말을 우리는 참 쉽게 합니다. 그런 말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좌절하게 될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심결에 그런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규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죠.

‘낙인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그런 굴레를 씌우고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 한답시고 대안학교 만들어서 아이들을 자기 맘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문제아들이 다시 ‘학교 적응아’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이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까.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문제아 취급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느끼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고 처음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온다고 할 때 교장인 저나 우리 선생님들부터 그런 용어를 입에 담거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한다면 이미 교육은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학교든 교육다운 교육을 하려면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데 어우러져 생활해야 합니다. 범생이와 날라리, 공부 잘하는 아이와 농땡이 피우는 아이, 잘사는 집 아이와 못사는 집 아이가 저마다 골고루 섞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제가 꿈꾸는 대안교육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와 신념을 학교 설립 첫걸음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학교를 운영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 네,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빚어지는 오해들이지요. 재밌는 것은 처음부터 설립 과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대개 그 ‘주변인’들이 ‘대안학교는 이런 거야’ 하며 막연하게 의미를 규정해놓고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책임감 없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로 ‘훈수’를 두는 거죠.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를 좁게 보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한 학생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자는 ‘새로운 학교 설립 운동’으로 보는 게 맞지요. 단순히 문제아나 꼴통들만 다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 길에 뛰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소외집단이나 ‘수용소’를 만드는 일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치유나 돌봄센터 같은 곳을 만들자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학교의 형태보다는 독일의 하임(Heim)처럼 또 하나의 가정형 돌봄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학교는 기존의 일반학교를 다니게 하자는 것이지요.

어쨌든, 처음에는 제가 간디학교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저 양반이 간디학교처럼 귀족 학교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오해도 받았지요. 허허 참, 이 선생님이나 제가 그곳에서 같이 지내봤지만 간디학교가 정말 귀족학교인가요? 가치관이나 삶을 공유해 본 적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훈수’ 두는 ‘주변인’들이 만들어낸 ‘편견’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했던 소중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 이탈한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는 가장 ‘행복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게 설립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 **이른바 문제아들만 다니는 대안학교를 만들면 또 하나의 ‘수용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 지금 경남만 해도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연간 2~3천 명 남짓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히 교육하는 학교를 수십 개 만들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는 그것을 문제라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문제 부모 없이 문제 자녀가 존재합니까? 문제 교사 없이 문제 학생이 존재합니

까? 문제 사회 없이 문제 청소년이 존재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규정해 버림으로써 어쩌면 문제의 핵심을 교묘히 비껴가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일반학교는 편할지 모르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리로 보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아’, ‘부적응아’, ‘중도 탈락자’ 따위 말들을 태봉에서는 함부로 쓰지 말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청회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발제자나 토론자로 나선 분들이 열정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간디학교 교감 자격으로 참석해 말석에 토론자로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소위 진보적인 교육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태연하게 그런 말을 내뱉었기 때문이죠.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공청회 말미에 그만 흥분해서 제가 바른 소리를 좀 했지요.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문제아’나 ‘학교 부적응아’나 규정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를 말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모두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오늘의 학교와 교육 시스템 하에서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려 하지는 않고 끊임없이 아이들 탓만 하는 걸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걸러지지 않은 말들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날 제 말에 깊이 공감해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적잖이 놀라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어떤 분들은 지금이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정치사적 변화가 아니라
는 거죠. 이런 조짐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학교이고, 아이들이 아닐까요?**

■ 기존의 문화나 통념, 혹은 관행에 요즘 아이들이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추려고 하고 훈육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벌써 ‘눈치 채’버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서태지가 부른 <교실 이데아>의 노랫말은 “됐어, 이제 그만 됐어”로 시작하잖아요.

그 노래가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갑니다. 학교가 의미 없는 공간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은 노래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교육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노래가 나올 무렵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안학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전국에 대안학교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 조한혜정 교수가 “공략하지 말고, 낙후시켜라”라는 말을 그 무렵에 했었죠?

■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어둠을 타하는 것보다 촛불 하나 밝히는 게 더 낫다”라는 사티쉬 쿠마르의 말과 일맥상통하지요. 정치를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

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기존의 권력이나 주류문화가 이야기하는 것들 자체를 구태의연하고 낡은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버리라는 얘기였죠. 그게 진짜 혁명이라는 것이죠.

조한혜정 교수님은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입은 고마운 분입니다. 대안교육계에 끊임 없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제공해주시니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한 분이죠. 기존의 프레임에 가두고 훈육해서는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나서서 말했던 분입니다.

□ 앞으로 전국에 공립 대안학교들이 여러 개 더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방향은 중도 탈락 학생과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교육부나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대안교육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진보적인 교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초기 전교조 운동에 헌신했던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분도 공립 대안학교의 역할은 바로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공립 대안학교가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기존의 교육에서 탈락한 학생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게 당장은 나무랄 데 없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비교육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학자들도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이런 사고방식을 접할 때마다 진보교육의 교만함을 느낍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심포지엄에 가보면 다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당장 힘든 아이들을 먼저 거두어야지, 어떻게 섞어서 뽑느냐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하는 말인 줄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일이지요. 공립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그런 관점으로 한정하여 설정한다면 앞으로 큰 시행착오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벌써부터 그런 시행착오를 낳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공립 대안학교를 새롭게 세웠지만 정작 그 학교는 당장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들도 보내고 싶지도 않다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요? 아이들을 ‘선발’하기는커녕 해마다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문제는 무어라고 설명할까요? 아이들이 일반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떠났다면 그 아이들이 다시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학교, 부모들이 믿고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열어주는 게 정부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학생과 부모의 심정은 깊이 헤아리지 않고 여전히 가르치는 관점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점으로 교육과 학교를 생각하니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학교를 게토(getto)화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친구들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우정을 맺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되죠.

□ 그러자면 자기와 다른 존재를 만나야 하겠죠. 자기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만 만나지 말고.....

■ 그렇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교육의 본질은 우정을 싹트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골고루 섞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존재를 상대할 줄 알게 되죠. 그게 교육 아닙니까! 잘난 놈들 따로 모으고, 못난 놈들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게 소외된 아이들을 위하는 일인가요?

□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공개토론 같은 걸 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될 때마다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평생을 진보교육 운동에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분들마저 그런 주장을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꼴통 학교’, ‘문제아 학교’라고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자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를 제한해버리면 구제조차 안 된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의 목표를 구제에 둔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그런 교육에만 매달리다 보면 교사들도 금방 지치고 맙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차별받고 지내면서 상처가 있는데, 학교 자체가 차별화된 학교라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저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육은 금방 기능주의로 변질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어야 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학교를 세우는데도 성공하기가 그토록 힘든 겁니다.

□ 그런 대안학교라면 오히려 교육문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곳으로 전략할 수도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공립 대안학교를 자꾸 지어서, 문제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문제없는 아이들만 일반학교에서 잘 가르치자는 발상이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모순은 모순대로 남아 있고, 변명거리를 합법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을 공립 대안학교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든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확산하는 예는 지금까지 교육계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 선생님들도 힘든 아이가 있으면 공립 대안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요. 좋은 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다른 문제에서는 통합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독 이 문제만은 분리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장애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를 잘 지은 다음 모든 장애 아이들을 그 학교에 모아 가르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니까. 일반학교에도 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장애아들만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보교육 진영에서조차도 공립 대안학교의 방향 설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봐도 그렇고, 토론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 선생님은 ‘공립 대안학교 3퍼센트 설립 운동’을 제안하셨죠. 왜 3퍼센트입니까?

■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퍼센트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상징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공립 대안학교가 3퍼센트가 된다면 공교육도 바뀌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어느 조직에 몸담아 봐도 항상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굴러가는 걸 무수히 보았습니다.

3퍼센트의 소금 기능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학교가 희망을 보여주면 다른 학교 교사들도 대안을 고민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퍼센트의 학교가 제대로 교육하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다른 학교들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를 이제는 굳이 ‘대안학교’라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곳이라면 그런 용어조차 불필요합니다.

대안학교라는 말도 사용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좀 낡은 말이 된 감이 있죠. 이 용어 때문에 쓸데없이 생기는 오해와 편견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경남에 태봉고 같은 학교를 초등학교 열 개, 중등학교 열 개, 고등학교 열 개 정도 만드는 게 꿈이자 목표입니다.

□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교육 관료들이 이런 학교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고 보십니까?

■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의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교육 관료들을 너무 경원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비전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바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그러니까 태봉고의 사례가 참 중요하겠군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 우리 학교 지원자 중 2/3는 탈락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태봉고의 잘못이 아니죠. 대안학교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학교를 더 만드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두 개 정도는 더 하루라도 서둘러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새 학교를 짓자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개조해서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가 반드시 시골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도시에도 있고, 도시 근교에도 골고루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게 무엇보다 급한 일입니다. 수업을 바꾸고 학교 운영을 새롭게 하려면 교사 재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태봉고의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면 교사들도 차츰 변화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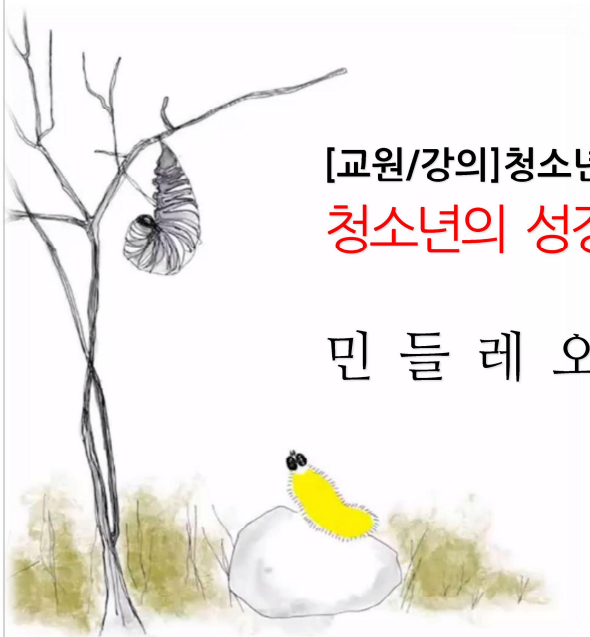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다가 일반학교에 가서 다시 입시교육을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운 거죠. 교사들을 위해서도 공립 대안학교가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나 교사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폭 넓게 주어야 합니다.

대안학교 설립 운동은 인문계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학교에 가고, 이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학교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 위의 토론자료는 여태전 저 『공립 대안 대안 태봉고 이야기』(서울: 여름언덕, 2014)에서 일부 발췌함

**[교원/강의] 청소년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
: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1년의 교육과정

김 경 옥
공간 민들레 대표



[교원/강의] 청소년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1년의 교육과정

민들레 오디세이의 실천

'Hope for the Flowers' © 1972 by Trina Pau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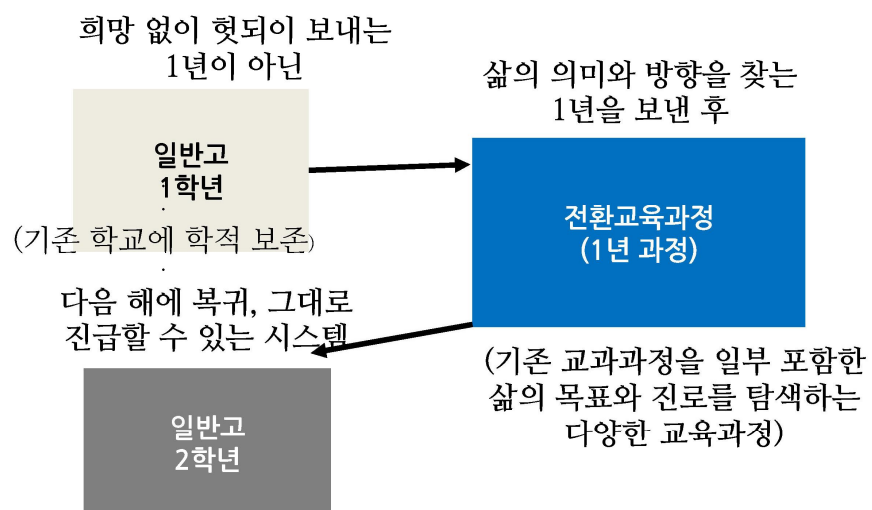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된 배경

- 교육청 : 일반고 살리기와 잠자는 아이들
- 민간 :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접점 만들기

쟁점

-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만?
- 대상은?
- 기간은?
- 민관 협력의 원칙 또는 방식은?
- 시작 시기는?

기본 구조



- 1년 과정의 ‘전환학년’ 구조
- 민관 협력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
- 고1 학생 대상. 45명 모집 -> 현재 100명 5학급
- 고 1 학력 인정 과정, 1학년 필수 이수 교과 운영
- 민간 대안교육기관 3곳을 협력기관으로 3개의 교실 운영 -> 현재 민간 교실 3, 공교육 교실 2

민간 협력의 개요

- 교육청 : 학생 모집. 재정. 행정. 민간 협력 기관 선발 및 선정, 지원 담당
- 민간 : 교사, 교육과정 구성. 실행 담당
- 교육청과 민간 기관은 1년에 한번 위탁 협약
- 민관 협업, 역할 분담 등 관련 사항은 오디세이 운영규칙으로 확약
- 기타 실행 과정에서의 제반 쟁점은 오디세이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최소 월 1회)

교육과정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

“배우기를 배우는 1년”

-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과 설계의 핵심
 - 학습자인 청소년에 대한 이해
 - 시대와 조응하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 시대 읽기

청소년기의 과업

- 사회적 존재로 서기 : 부모라는 세계를 넘어서기
- 추상적으로 사고하기 : 추상의 세계 인지하고 사유하기.
연역적 사고 능력 성장
- ‘나’를 세우기 - 자기다움, 정체성 등에 대한 욕구 분출.
자신의 욕구와 생각이 아닌 것을 부정하고 거부해 볼 수
있는 시기
- 또래 커뮤니티 멤버로 활약하기

그런데 오늘의 청소년은?

- 학교 - 학원-집의 삼각 구조에 순응하기 위해 증상이 필요
- 무력감, 무감동, 소통과 관계 맺기의 어려움
- 사회를 상상만 하며 자란다
- 실패는 두렵지 않으나 '실패한 나'는 두렵고 겁난다
- 자기 자신이 제일 낯설다
- 책상에는 앉아 있지만 배우고 있지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다
- 學과 習의 분리, 순환 장애 상태

청소년이 겪고 있는 진짜 어려움

- 교육 상황, 각종 격차로 경험과 소통의 부족
-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
- 갈등 회복 경험과 심리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부재
- 뚜렷한 문제행동이 없으면 그림자처럼 학교에 다녀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 - 발달과 성장에 대한 케어를 받지 못함
- 열패감, 열등감으로 욕구도 동기도 생기지 않는 상태의 악순환

청소년, 그들의 성장을 도우려면

- * 자신, 타인, 세상에 ‘깊게 발을 담그는’ 관여와 기여의 기회를 통해 경험화 하고 자기다움을 만들어 가야 한다.
- * 청소년기 성장을 품는 공동체성을 가진 시공간이 필요하다
- * 생존을 위해서는 갈등과 문제를 드러내고 잘 싸우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관계가 필요
- * 회복의 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느끼게 하고 신뢰의 경험은 유예된 배움의 욕구를 다시 가동시킨다.

시대와 조응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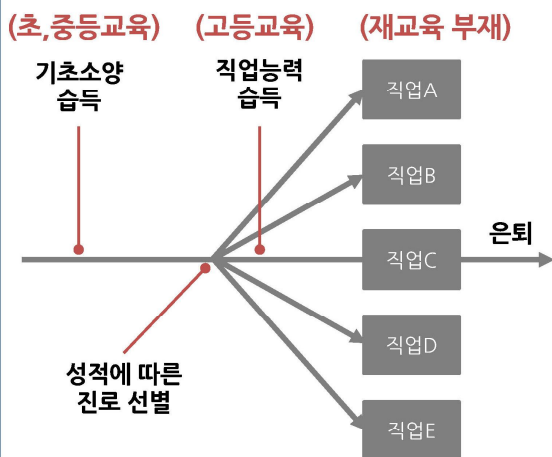




미래는 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직업능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진로탐색능력’이 필요한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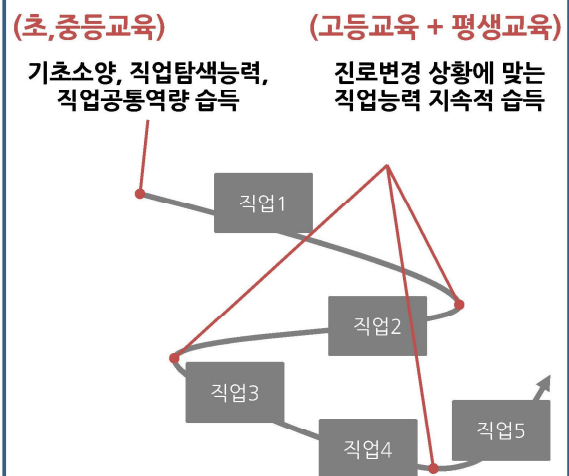
과거형 단선적 직업능력 교육

업종별로 필요한 노동력을 국가의 기획과 통제 하에
선별하고 양성하여 해당 업계에 공급,
은퇴할 때까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음



미래형 다층적 직업역량 교육

산업의 다변화와 경제영역의 불확정성 증대로 인해
국가가 모든 직업군을 기획하고 통제할 수 없음
개인도 생애주기 안에서 지속적인 직업 변화를 겪음



배움이 일어나려면

- **시간성** -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 **일상성** - 특별한 체험이나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 **효능감** - 배움을 통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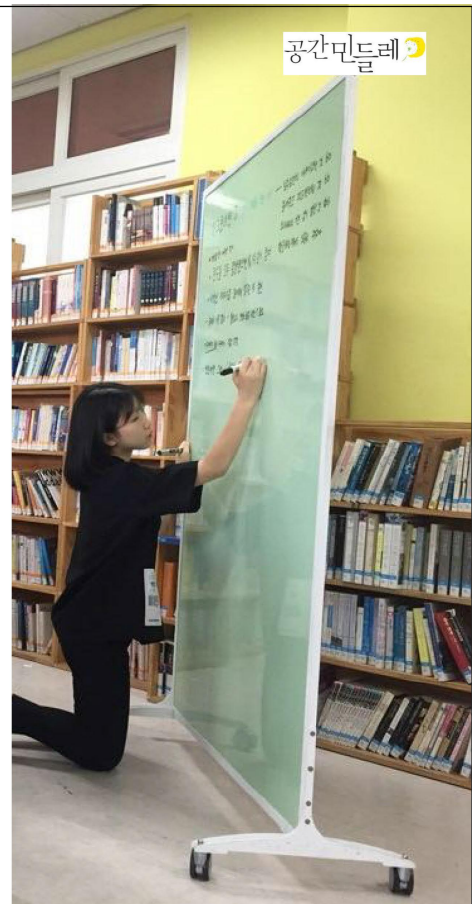
배움의 방식

- **전환여행** - 1년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 몸과 마음과 생각의 전환을 자극적으로 경험한다.
- **아침 열기** - 하루를 셋업하는 시간
- **그룹미팅** - 모든 교육활동을 자신과 연결하는 활동. 해석하고 연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기. 동료들과 서로 피드백 하기
- **프로젝트 활동** - 배움의 네 가지 원리
- **수업**: 학력 이수 기본교과, 선택교과, 민들레 필수교과 등
- **각종 기획활동/ 특강 등**

배움의 원리

- 스스로 배운다
- 서로 배운다
- 하면서 배운다
- 넘나들며 배운다

오디세이 민들레 주요 교육활동



3월 2~9일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오디세이 입학식
- 공간민들레 학습과 생활에 대한 안내

공간민들레 ☺



3월 12~23일 ▪ 시작을 위한 전환여행

공간민들레 ☺



3월 30일 ▪ 맞이식 : 시작을 알리는 의식

공간민들레



01. 1학기 활동표

공간민들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교시 9:30~10:00	아침열기						
1교시 10:00~12:00	그룹미팅	프로젝트	보통교과	말과글1	통기타	수학사&과학사	바디퍼커션
12:00~13:20	점심시간						
2교시 13:20~15:10	그룹미팅	프로젝트	보통교과	말과글2	문학에서 길을 찾다	관계 심리학	시민학
3교시 15:30~17:30	자치회의	프로젝트	보통교과	말과글2	영상	세계문화	체육

4월 ~ 7월 ▪ 1학기 주간일정의 시간

공간민들레



7월 9일 ~ 7월 13일 ▪ 한 학기 돌아보기

공간민들레



7월16일 ~ 8월1일 ▪ 여름 보통교과 집중이수

공간민들레



02. 2학기 활동표

공간민들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교시 9:30~10:00	아침열기								
1교시 10:00~12:00	그룹미팅	프로젝트	보통교과	관계 심리학	통기타	수학사	시민학1	시민학2	
12:00~13:20	점심시간								
2교시 13:20~15:10	그룹미팅	프로젝트	보통교과	말과글1	말과글 2	말과글 3	세계문화	산책	뮤지컬
3교시 15:30~17:30	자치회의	프로젝트	보통교과	바디 퍼커션		체육	기획수업	독서	

8월 16일 ▪ 2학기 주간일정의 시작

공간민들레 🌻



10월 10~13일 ▪ 질문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

공간민들레 🌻



12월 21일 ▪ 과정 마무리 발표회

공간민들레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김경옥 / 오디세이민들레

1. 들어가며 - 우리가 던지고 있는 것은

오디세이학교 초창기 자주 들은 말 중에는 “애들 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가 있었다. 지금은 거의 듣지 못하는 말이기도 하다. 당연한 말이다. 그럴 때마다 “오디세이학교라는 시스템은 실험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는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실천을 더욱 다듬고 갈무리한 것이에요.”라고 답한다. 오디세이에서 하는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디세이학교용으로 딱딱딱딱 만들어 ‘짠’ 하고 런칭한 게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새롭게 내놓은 것은 ‘서울시교육청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라는 새로운 제도이지, 오디세이학교의 교육활동이 아니다. 오디세이 교실에서 날마다 이뤄지는 교육활동은 오래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의미나 목적을 되새김질하며 고민하고 연구하고 비평하고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해서 얻은 교육철학이나 교육의 원리나 교육 방법을 오히려 준수한다. 그래서 오디세이 교육은 특별하고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그 본질에 충실한,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오디세이학교 교육활동을 좌우하는, 일반학교 교육과는 다른 몇 가지 전제가 있다. 먼저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가 오랫동안 제도 밖에서 교육적 실천을 해온 대안교육기관들이라는 점이다. 시작해인 2015년에는 공간민들레와 꿈틀학교, 그리고 아름다운학교가 협력기관이라는 포지션으로 결합해 교육활동을 해냈다. 2019년 현재는 공간민들레와 꿈틀학교, 그리고 하자센터가 함께하고 있다. 이 대안교육기관들은 20년 가까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과 함께 배움과 성장의 길을 열어왔고, 이들의 경험을 딛고 오디세이 교육은 구성되고 실행되었다. 공간민들레는 학교들과는 거리가 있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15~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과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2006년부터 ‘배우기를 배운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1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터라, 교육청의 1년제 갭이어 구상이 크게 낮설지 않았다. 그리고 꿈틀학교는 문화예술과 교육을 접목시키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를 토대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꿈틀학교의 경험은 오디세이학교가 1년제 진로교육의 정체성을 갖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아름다운학교나 하자센터도 청소년의 자발성을 키우고 스스

로의 존엄성을 되찾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해왔다. 대안교육기관의 오랜 교육 경험은 이후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과정으로 정리되어 실제로 구현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교실과 사람들 사이를 흘러 다니며 오디세이 교육을 만들어갔다.

또 하나의 특징은 1년이라는 시간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6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닌 딱 1년이다. 1년이라는 ‘시간성’을 반영한 교육활동이다. 시간이 아닌 시간성이라는 표현을 쓴 까닭이 있다. 이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교육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년이라는 유한성이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강조해서이기도 하다. 오디세이를 선택한 고1의 ‘길동’이가 어떤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갈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으면 자칫 과도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때론 너무 느슨해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오디세이학교가 가지고 있는 1년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을 넘어 오디세이 교육을 좌우하는 중요한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또, 오디세이교육은 ‘나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지고 싶어요.’를 달고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는 현상적으로는 일반고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선발과정을 통해 모인 학생들과 교육활동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2015년 3월 오디세이 1기 지원자 면접날을 잊을 수가 없다. 40명 모집에 8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려왔다(?). 한 지원자의 말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담임선생님한테 가정통신문을 받아, 무심코 가방 안에 넣으려다 한 문장에 꽃혀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옆을 봐도 팬찮은 1년, 모험과 용기를 가지고 떠나는 삶의 방향을 찾는 항해...’ 뜻도 모를 말들이지만 웬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빨리 누구에게든 말해야지 하고 한걸음에 달려 집으로 갔다. 엄마는 뭐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세상 태어나 처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순간이 온 느낌이었다.” “뭐가 잘못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라는 지원자도 있었다.

학생들은 오해든 이해든, 오디세이학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정성들여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진입한다.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저를 꼭 뽑아주세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오디세이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강력하게 자신을 어필한다. 오디세이에 다른 문턱은 없다. 본인이 오디세이에서의 교육활동을 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가늠자다. 1기부터 5기까지 많은 지원자를 만났지만, 최소한 면접날 면접 자리에서만은 모두 최선을 다해 배우고 싶고 나아지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열여섯 인생이었다. 물론 면접 당시의 그 강력한 바람이 내내 이어지는 건 아니다. 3월이 지나고 4월로 들어서면 봄날 눈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하지만, 그래도 그 바람을 소중하게 품고 간다. 그것이 오디세이 교육활동의 전제다. 당사자 스스로 드러낸 배움과 성장의 욕구이고, 그것만이 배움의 문을 열 열쇠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날만의 맹세라 해도 그 다짐과 바람을 붙들고 1년을 간다. 그 말들은 지원서의 기

록으로 면접장에서의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아, 오디세이 교사들은 수시로 상기시킨다. 누구에게나 있을, 어쩌면 숨겨두었거나 잊었을 수도 있는 배움과 성장의 욕구를 다시 받아 시키기 위해서다. 교육은 그래야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네 군데 배움터에서 각각의 특색을 가진 오디세이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곳이나 오랜 대안교육의 경험을 딛고, 1년의 시간성을 갖고, 학생 당사자의 바람을 품고 교육활동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활동 공간도 다르고, 내용도 교과목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교사도 다르지만 네 군데에 흠어진 오디세이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다들 어딘가 닮은 모습이다.

지금부터 오디세이의 교육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지만, 오디세이민들레로 편중되었다. 이는 네 개의 오디세이 교육을 두루 살피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디나 실은 서로 닮은꼴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쓰는 이의 소속 탓에 민들레라는 창을 통해 오디세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짐작컨대 꿈틀이라는 창으로 보든, 하자라는 창으로 보든, 2017년부터 공교육 교사들이 맡아서 해온 혁신파크의 창으로 보든, 그것은 모두 같은 오디세이 교육일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만 관찰과 공부의 부족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오디세이 교육활동을 공유하는 출발점에 불과할 것이다. 현장으로 찾아와 직접 보고 질문하고 대화하며 공유하고, 또 이어질 기록물로 부족함을 메울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교육 실천을 정리하는 용기를 낸다.

2. 교육활동의 특징 -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오디세이학교

오디세이학교의 네 배움터는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한 인간이 성장해나가는 데 열여섯, 열일곱은 주요한 변곡점으로 여겨진다. 몸과 마음의 변화가 동시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때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울분을 토하거나 우울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답도 없는, 어떤 인과관계에서 나왔는지도 모를 질문이 쏟아지는 것도 이즈음이다. ‘왜 살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인간은 도대체 뭐지?’ ‘우정은?’ ‘가족은 왜 필요해?’ 등과 같은 물음이 내내 머릿속을 헤집는 때도 이때다. 이 시기에 답도 없을 질문을 붙들고 몇 날을 끙끙거리기도 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히기도 하고, 길을 걸으며 하늘 봤다 땅 봤다 하며 답을 찾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면서, 자신의 답을 ‘만들어간다’. 청소년기의 그 방황이야말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여정’이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열일곱에겐 방황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오디세이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맘껏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궁금해 하고, 질문하고 사유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하며 나와 세상을 알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오디세이의 교육이다.

오디세이의 교육은 그 실행에서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모든 교육활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오디세이의 교육활동도 일반학교와 다름없이 시간표로 표현된다. 각각의 활동이 요일별로 시간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모든 교육활동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 속에서 기획되고 실행된다.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는 물론 실행 단계에서도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한다. 가령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오디세이는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교육’을 실천하는 곳으로,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오디세이민들레는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것은 평생의 일이고, 제대로 삶의 방향을 잡고 자신의 입장을 세워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배우기를 배워야 한다’고 정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무엇일지, 그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어떤 방식을 쓸지, 각 가장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맥락으로 연결하면 좋을지 논의해 교육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짠다.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교육이 씨줄이 되고, 배우기를 배우기가 날줄이 되어 눈에 보이는 시간표라는 그물망이 만들어진다.

교육계획에서의 연결과 상호보완성은 실행 단계에서 더욱 명심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이 우리의 교육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은 물론 각 교육활동과 수업 담당 교사와의 교육 현황이나 목표, 학생의 상태 등에 대해 자주 소통해 서로의 교육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한다.

중요한 교육적 장치도 있다. 바로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 4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그룹미팅’이 그것이다. 대체로 10명 정도의 규모로 모여서, 일주일 동안 뭘 배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어떤 의미였는지 끄집어낸다. 자신의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을 친구들과 함께 해석하고 정리하고 기록해 자신과 연결하는 활동이다. 이는 계획된 교육활동은 물론 무심코 흘러보내기 쉬운 일상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어져서 결국 ‘나의 지금과 내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룹미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교육활동을 했으며, 각각의 교육활동은 학생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의 교육활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맥락을 짚고 해석하고 피드백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들끼리도 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정자 역할도 한다.

[시간표 예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10:00 ~ 12:00	그룹미팅	프로젝트 (민들라디오)	영어로 놀고 만나는 세계	한국사	시민학1
1:30 ~ 3:30	그룹미팅	프로젝트	말과 글2	영어	그룹미팅
3:30 ~ 5:30	자치활동/ 자치회의	프로젝트	관계심리학	수학	바디퍼커션
저녁 시간	그룹미팅과제 일기쓰기	(소모임) 일기쓰기	당일 수업 과제 일기쓰기	당일 수업 과제 일기쓰기	(소모임) 독서기록쓰기 일기쓰기

또 하나의 특징은 배우는 자로 서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점이다. 학생은 흔히 ‘가르침을 받는 이’로 간주된다. 모름지기 가르침을 착실히 받는 것으로 그 직분을 다했다고들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면 자기주도학습을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학습방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 전에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 즉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뭘 배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배우고 싶어지는 상태, 그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가르침은 배움으로 이어진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건, 가장 먼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는 희망을 접지 않았을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기대와 존중감을 가진 때고, 자기를 둘러싼 세상(어른)에 대한 신뢰를 가진 때다. 바로 이때 누구나 배우고 싶어진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고 싶고, 가야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배우려 든다. 누가 말려도 배운다.

이곳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은 이렇듯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다.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려면, 즉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존감을 갖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연구해 교육내용과 교육방식과 과정을 설계했다. 내용적으로는 인간과 자신은 물론 세상의 흐름을 잘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함을 인지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과 기획활동을 다수 개설한다. 배우는 자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프로젝트 활동이 있다. 학생들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 함께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 활동을 매주 목요일 하루 실시한다.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서 출발해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서보는 경험은 바로 ‘배우는 자’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다. 프로젝트 이외의 수업 등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더욱 원활하게 또는 풍성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더불어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오디세이 교육기관은 시간표 상에서의 명칭은 달라도 이 점을 명심하고 교육한다. 민들레도 예외는 아니다. 그룹미팅, 기획활동, 프로젝트 활동, 체육활동 등 많은 교육활동은 ‘공동체의 성취’가 곧 ‘개인의 성취’로 연결됨을 알게 한다. 이는 ‘단체기합이나 다함께 책임지기’와는 다르다. ‘단체기합이나 다함께 책임지기’는 못하는 사람을 감당해야 하는, 일면 공동체나 협력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하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고, 즐겁네’의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용한다. 개인 활동보다는 팀 활동이 중심이 되, 팀끼리 줄을 세우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당연히 결과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각자의 역량이 제 나름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는 개입하고 조정한다.

오디세이 교육의 핵심은 잠재적 교육과정(문화)이다. 교사는 교육적 원칙을 선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배우는 자’로 거듭나라고 말하기보다 교사 스스로 배우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인다거나, 교사공동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이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등이 모두 주요한 교육활동이다. 시간표보다는 시간표 너머에 있는 문화가 아이들을 하루하루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다.

회의 같은 데서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발견하고 챙겨준다든지,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언제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먼저 발견하거나 먼저 아파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경청과 존중의 문화를 느끼고 나면, 학생들은 이곳이 평가 받고 비교하는 서바이벌 공간이 아닌 그 어디보다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주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에는 공간도 있다. 책걸상의 배치는 물론 공간의 색깔 등도 교육적 요소로 작용한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장소로서의 교육공간은 기존의 학교와 같은 책걸상 배열이어서는 그 몫을 다하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선을 주고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동그란 배치나 디글자 배치가 바람직하다.

3.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교육_교육방법론

1) 배움이 일어나는 네 가지 원리

오디세이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교육’은 그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기준이자 지침이다. 실천의 시작점에는 ‘어떻게 하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교육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기존의 학교 교육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적 교육을 해온 국내외 많은 학교나 사람들의 사례는 물론 20년 가까운 우리들의 경험도 다시 검토했다. 이 과정을 거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뭐든 스스로 하고자 할 때 교육이라는 것은 비로소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가르침보다 배움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사자가 찾고자 하고 배우고자 할 때 모든 활동과 가르침은 영향력을 갖지만,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레 확인한 셈이다. 오디세이 네 개 배움터는 교사도 다르고 조건도 조금씩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지만, 이 점에 있어선 서로 다르지 않다. 모든 오디세이 교실에는 ‘스스로 배운다’ ‘서로 배운다’ ‘하면서 배운다’ ‘넘나들며 배운다’는, 학생을 중심에 둔 배움의 네 가지 원리를 녹여내기 위한 노력이 있다.

하나. 스스로 배운다

누구나 배우려고 해야 배우고, 그가 배울 때 배운다. 배움의 타이밍도 내용도 방식도 모두 학습자 스스로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는 말이다. 배움에서의 자기결정권이 관철될 때 배움은 일어난다는 배움의 원리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교육의 원리기도 하다. 그리하여 오디세이의 배움터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의 ‘스스로 배우기를 돕는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 인턴십, 기획여행, 자치회의, 선택수업....등 그 이름도 다양하다. 하지만 더 많은 ‘스스로 배우기’는 활동명이나 수업명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원리거나 태도거나 시선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활동명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깊게 챙겨야 할 것들을 언제나 떠올린다.

먼저 교사나 어른의 역할이 있다. 흔히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말하면, ‘그럼 아이들이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냐’는 ‘뭘든 제 멋대로 해도 된단 말이냐’라고 묻는다. 이어서 ‘교사는 뭘 하는 거냐’는 말도 따라온다. 이에 대해 키노쿠니 학교 교장 호리 선생의 말이 있다.

“교육에서 자기결정의 원칙을 생각할 때, 교사는 그저 방관자거나 지켜보는 이가 아니다. 아이 자신의 선택, 발상, 판단 등을 존중한다고 해서 교사가 자신의 ‘지도성’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교사는 아이의 현재의 모습(발달단계, 성장 정도, 학습력, 기호, 적성 등)을 잘 이해한 후, 그 아이의 지적 흥미를 자극하고, 열중해서 몰두하게 하고, 그 결과 확실한 힘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나 환경을 풍부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아이들을 직접 자라게 할 수는 없다.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이나 환경이다.” 교사는 학생이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맘껏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판을 만드는 사람인 거다. 그저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지적 흥미나 의욕을 자극하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무엇이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들은 학생은 오히려 부자유를 강하게 느낀다.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배움터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매력 있는 활동이 풍성한 곳이어야 한다. 학생이 얼마나 자기결정권을 발휘하는지는 그것을 발휘할 장면과 내용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교사의 시간이나 정성에 비례한다. 다만 오디세이에서 만

나는 열일곱 인생들은 지금까지 자기결정권을 발휘해본 적이 거의 없다보니, 교사들을 종종 힘들게 한다. 교사들이 시간이나 공을 들여 준비한 것들이 기대만큼 학생들의 환대를 받지 못한다. 오디세이에서 강조하는 ‘자기결정권’이나 ‘스스로’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이걸 믿어도 돼?’ 하는 표정을 자주 짓는다. 1년의 시간 동안 첫 두 달은 ‘믿어도 돼?’에서 ‘믿어도 돼!’가 되어 가는 시간이다. 오디세이 5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믿어도 돼?’에서 ‘믿어도 돼!’로 되어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두 달이 세 달이 되어가는 느낌도 있다. 아주 드물지만 가을이 되어도 계속 긴가민가 하는 상태의 학생도 보면서, 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기도 한다. 오디세이 교사들은 2019년 겨울방학을 ‘믿어도 돼?’에서 ‘믿어도 돼!’를 지금의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토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교사의 역할과 함께 평가에 대한 시각도 중요하다. 자기결정을 원칙으로 하는 배움이나 활동에서는 학생이 자발적으로(종종 교사의 조언을 듣고) 활동을 선택한다.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는 학생 자신에게 활동이 끝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다. 말로 제대로 설명을 못해도 뭔가 확신 같은 게 있어야 한다. 일종의 달리기 출발선에서 저 멀리 있는 골인지점에 눈길이 갔다가 다시 운동화 끈을 조이며 다리에 힘을 주는 상황과 닮았다. 같은 활동이나 수업에 참가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목표가 다를 때도 많다. 한 명 한 명 배움의 속도도 가고자 하는 곳도 다른 셈이다.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디세이는 당연히 1등에서 꼴등까지 줄을 세우기 위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뭐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위한 평가는 모든 활동에서 일관되게 이뤄진다. 이때 해당 활동이나 학습에 대한 평가는 학생 스스로가 해야 한다. 교사의 조언이나 지적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이 모든 도움말을 반영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 자신이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학생 자신과 교사나 친구들의 평가가 달라도 누구의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불일치는 다음 배움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오디세이에서는 교사는 ‘잘했어, 성공이야’라고 평가하는데도 학생들은 ‘아직 멀었어요’라며 오히려 학생이 서둘러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교사는 마음속으로 ‘앗싸’를 외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중요하다. 오디세이에서는 교사를 길잡이라 부른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의 길로 안내하거나 자극을 주는 사람을 뜻한다. 길잡이에게도 권위는 존재한다. 오히려 권위는 더욱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란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절로 따르게 하는 힘이 진정한 권위일 것이다. 오디세이의 교사는 이를 지향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걸 보고 따른다. 오디세이 교사의 역량(교육력)은 그래서 교수력이나 활동력 등으로 분리해 판단할 수 없다. 그의 인격과 삶의 태도, 무엇보다 실행하는 모습 등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길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사람으로서의 교사는 교사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일 때 학생들이 가장 잘 따른다. 많은 걸 잘 알아서 잘 가르쳐도 존경받을 수 있지만, 알고 싶은 걸 즐겁게 배워가는 모습이야말로 학생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텍스트가 된다. 그래서 오디세이에서는 교사의 전공은 무엇이었는지, 무슨 과목을 가르쳤는지 보다 지금 무엇을 더 알고 싶어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교사가 알고 싶어 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테마로 수업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구성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이들은 상대가 교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자신들의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가 하는 최소한의 요구나 조언이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지위관계를 확인시키는 호칭은 필요 없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란’ ‘동묘’ ‘만두’ ‘은빛’ 같은 별명을 부르는 편이 서로 친밀해지고, 실제 활동이나 배움도 순탄하게 진행된다.

둘 서로(함께) 배운다

최근 개별화교육, 맞춤형교육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면서, 바람직한 교육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혼자서 공부하기’로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에 대해선 과연 교육이란 무엇인지, 특히 오늘의 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싶어진다. 그것은 ‘홍익인간’으로 자라도록 돕거나,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거나,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무엇을 교육이라 정의하든 교육은 상대와 함께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고 익혀 자기화 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익혀 비로소 좋은 삶을 사는 자신이 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각자 자기 결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은 혼자서는 못가거나 결국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오디세이의 1년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그것이 결국 나의 성장을 더욱 돕는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즐겁고 기쁜 것이라는 경험을 하고 떠나기를 바란다. 1년의 경험이 학생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에 남아, 오디세이를 떠나서 어디에 있든 ‘더불어 배우고 익히기’를 도모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혼자 살기, 혼밥, 혼술, 혼영 등 실제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오늘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불어 할 줄 아는 힘은 소중해질 것이다. 이것은 간절한 바람이거나 믿음이 아니다. ‘더불어 배우기’의 성취는 다양한 교육이론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최근 민들레출판사에서 출간한 <경쟁은 없다>라는 책에서 알피콘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오디세이에서 말하는 ‘서로 배운다’는 팀 단위의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배움은 상호 작용의 과정이거나 결과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는 배움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가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상대가 아닌 힘을 합쳐 함께 성취를 만들어 가야 하는 동료성과 연대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쟁은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자존감’에 타격을 입힌다. 많은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승리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패배자가 된다. 게다가 승리한 사람 역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알피 콘은 이를 경쟁의 악순환이라고 부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신념 체계인 자유경쟁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이 책은 경쟁이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근거로 증언한다.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성적 등급, 포상 제도, 수업 관행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역설하면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경쟁의 대안으로서 ‘협력학습’을 제안한다. 협력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나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강조한다.’ 알피콘의 <경쟁은 없다> 서문 중

위의 말처럼 아이들은 이미 경쟁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던 터라, 오디세이의 협력하고 함께 배우는 문화에 쉽게 젖어들지 못한다. 가령, 프로젝트활동은 거의 그룹단위로 이뤄지는데, 1학기의 학생들은 “버스 타는 아이들은 어떡해요?”를 묻는다. 이때 ‘버스 탄다’는 무임승차,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성과만 가져가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짜증내고 눈치 본다.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을 전제로 하고, 교사들은 비교 평가를 하지 않으며, 실제로 같이 하다 보니 자기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넘기도 하고, 성취를 이루기도 하면서 점점 달라진다. 신기하게도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이런 성격의 질문은 사라지고 없다. 불과 몇 달 만에 바뀔 정도로 협력과 연대의 경험은 그토록 강력하다.

교사들은 어른의 백 마디 말보다 친구나 또래의 한 마디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안다. 집단 안에서 ‘서로 가르쳐주기’가 가동되면 배우의 역동성은 배가 된다. 부산의 우다다(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이름의 대안학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선배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무언가에 대해 조금 더 아는 또래나 선배가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교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한다. 서로 배우기(상호학습)의 좋은 사례다.

그룹 단위로 이뤄지는 ‘함께 배우기’의 장점도 많다. 특히 탐구(학습)활동의 경우만 봐도 한 명이 아닌 여럿이 함께 할 때 확실하게 발휘된다. 예컨대 각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알아차리는 지점이 다르다 보니 혼자서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알아갈 수 있다. 다각적인 시점에서의 관찰, 다양한 가설의 형성, 역할분담에 의한 실행과 검증 등 개별학습에는 없는 장점이 많이 있다. 한 명 한 명을 고려한 교육과 그룹학습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이나 성장을 촉진하곤 한다. 다만 더불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자칫 누군가에겐 괴롭고 손해 보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룹을 만들고 운영할 때 무엇보다 아이들의 특징이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구성원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상상하고 예측하면서 함께

배우기의 난이도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작업을 함께하다 보면 함께 배우기를 그저 고단하고 피곤한 과정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준이나 속도 등을 감안해 시간도 조절하고 장애물의 높이도 조정해야 한다. 스스로 배우기에도 교사의 준비가 강조되지만, 더불어 배우기도 다르지 않다.

셋, 하면서 배운다

‘오늘의 아이를 어제의 방식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일’이라며 이미 100년 전에 당대의 획일적 교육을 비판했던 존 듀이는 ‘하면서 배운다 learning by doing’라는 말로, 텍스트 중심의 교실에 갇힌 교육에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전히 텍스트 중심이고 교실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삶의 힘을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디세이는 이런 교육의 성찰로 이뤄진 교육실천에서 많은 영감이나 교훈을 얻어 교육활동을 해오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건 거의 없다. 오디세이의 모든 교육 활동은 앞선 연구나 선배들의 실천을 디딤돌 삼아 이뤄진다.

듀이는 100년 전에 시카고 대학에 듀이스쿨을 만들면서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과제는,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개인적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자신이 사는 사회적 환경 속의 중요한 관계를 잘 알아,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했다.” 이 말은 우리의 오래된 교육목표인 ‘홍인인간’이나 민들레에서 말하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인간’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깨어 있는 시민’과도 같은 뜻으로 들린다.

듀이는 그리하여 각자 자신이 가진 본능, 신체, 감성, 지성 등 모든 것을 충분히 발휘해 역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살고 동시에 사회생활에서 기초적으로 알고 익혀야 할 의식주를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했다. 의생활의 중심인 직물, 편물, 재봉과 식생활의 중심인 음식 만들기, 그리고 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공작 등을 ‘활동적인 일(active occupations)’이라 이름 붙이고, 이를 교육에서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활동적인 일’은 단지 손이나 신체를 사용하기만 하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자발적인 지적 탐구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키노쿠니의 호리는 ‘하면서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메시지를, 그저 몸을 사용하거나 실제 사물을 만져보는 데서 그쳐선 안 되고, ‘문제(혹은 문제 장면) 감지→관찰→가설 설정→가설 수정→행동에 의한 검증’이라는 순서를 밟는 과학적인 체험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2,000년 한국에 오셨을 때의 대화에서)

이러한 활동이 지적 탐구로서 자발적으로 행해지려면 그것 자체에 충실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아이들이 실감하고 예견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인 활동이어야 한다. 그 일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꿉장난 같은 어설픈 모방이어서도 안 된다. 단순히 손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적 탐구로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면서 배우는 오디세이 교육활동은 오디세이 커리큘럼의 핵심이자 모든 배움의 출발점이다. 오디세이하자의 경우 그 모태가 작업장학교인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체험하고 작업하면서 배우기가 전반에 깔려 있다. 자전거공방, 목공방 등은 뭐든 도전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다. 꿈틀도 민들레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둘은 자체 인프라가 부족해 학교 벽을 넘어 세상을 작업장 삼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런 경험은 자연스레 오디세이의 활동에도 연결되어 지금도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구현되고 있다.

넷, 넘나들며 배운다

‘넘나들며 배운다’는 ‘유연성’ 또는 ‘개방성’이다. 이것만은 배워야 한다고 고집하거나, 여기서만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기 위해’ 필요한 거라면 무엇이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배운다는 걸 의미한다.

‘넘나들며 배운다’를 시도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형) 대안학교의 열악한 인프라가 한몫했다. 꿈틀학교도 공간민들레도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꿈꾸면서, 그것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공간도 교사도 내용도 부족했다.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꿈틀을 넘어서고 민들레를 넘어서야 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배움터로 삼아 종횡무진 상상력을 펼쳤다. 서울은 다양한 자원이 넘쳐났고, 교사들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특히 여러 문화예술 작업자들이 자신의 작업장을 배움터로 기꺼이 내주기도 하고, 또 교사로 나서주어, 교육활동은 풍성해지고 깊어졌다. 학교 담장 안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교수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의 배움의 욕구나 열정도 자라났다. 미디어센터, 지역 방송국(동작FM, 마포 FM, 성북FM 등), 영상기록원, 역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공공자원도 중요한 인프라였다. 학교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배움의 공간은 확대되고 확장되었다. 이 경험은 이후 오디세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교육활동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디세이꿈틀의 인턴십 활동은 넘나들며 배우기의 롤모델 같은 것이다. 청소년의 배움을 지지하는 수많은 멘토와 현장이 이미 연결되어 있어, 진로를 탐색하는 인턴십의 현장이 된다. 공교육 교사들이 서울 혁신파크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디세이 교실도 예외는 아니다. 혁신파크 한 건물 안의 일부 공간을 교실로 쓰고 있지만, 혁신파크 전체를 학교 공간인 듯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다양한 철학, 혁신적인 활동, 그리고 사람들 모두를 연결해 오디세이혁신파크의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일이라면, 특정한 활동이나 교과에 매일 필요가 없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하면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유연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는 ‘넘나들며 배우기’는 활동 간의 넘나들기, 교과목의 넘나들기,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넘나들기 등 다양한 넘나들기로 확장된다. 근대 학교교육이 분절시켜놓은

과목과 역할, 공간을 넘나들면서 살아 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 삶이 본래 통합적이기 때문에 배움 또한 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상과 활동 방식은, 교과서와 시간표에 익숙해 있던 학생들에겐 낯설고 생소한 것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진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 적당한 장소를 찾아내기도 하고, 나서서 강사를 섭외해오기도 한다. 교사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트렌드와 연결되는 즐거움을 아이들 덕분에 누리기도 한다.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넘나들며 배우는 주체가 된다.

오디세이교육의 네 가지 원리는 사실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배워야 하고, 자기결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열심히 도전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감독 아래 스무 명의 학생이 똑 같은 작업장에서 똑 같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 그걸 두고 ‘하면서 배운다’고 하기 어렵다.

스스로 배운다, 서로 배운다, 하면서 배운다, 넘나들며 배운다는 말은 표현이 다를 뿐 동일한 배움의 네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를 살리는 가운데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 삶의 원리이듯, 서로 배우는 가운데 스스로 배우게 된다. 또한 뭔가를 해보면서 배우는 것은 모든 배움의 기본 원리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논어의 구절은 배움의 원리를 잘 말해준다. 해보면서 배우고 반복하면서 온전히 익히게 된다.

4. 주요 교육활동

1) 학습계획 세우기(실은 마음 세우기)

교육은 1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기승전결起承轉結’의 흐름으로 이뤄진다. 3, 4월은 분위기로나 내용으로나 기起的 시기다. 한 날 한 시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오디세이에 들어왔지만 모두가 같지 않다.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학생은 아직 운동화 끈도 제대로 묶지 않았고, 어디로 얼마나 달려야 할지도 잘 모르는데, 어찌쪼? 하는 얼굴로 쳐다보는 학생도 있다. 또 달릴까 말까 망설이는 이도 있다. 이 무렵의 활동은 오디세이에 서 뭘 할지를 알고 ‘스스로’ 마음을 내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어찌면 시켜서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자신의 1년 활동의 지도를 그려본다. ‘학습계획서 쓰기’가 그것이다.

오디세이의 교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도 이 전제 또는 조건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알고 지원한 거긴 하지만, 그 조

건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그저 1년 동안 뭔가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정도다.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대로 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3월, 잘 살고 싶고 잘 해보고 싶고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자신의 1년을 설계해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저 상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엮을지 시뮬레이션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도구로는 ‘학습계획서’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계획서를 쓰기 전에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주 진지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장소의 셋팅, 교사들의 태도만으로도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1년 동안 학생들이 사용가능한 자원, 활동 내용, 수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린다. 학습계획서에는 오디세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1년을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오디세이 교사들이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등을 쓰도록 한다.

학습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안내글로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고 작성하는 이 계획서는 일종의 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목표 삼은 곳으로 가기 위한 내 나름의 안내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 안내도를 가지고 길을 나섰지만, 걷다보면 수정도 해야 하고, 다른 안내도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표지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2019년 3월, 처음 목표를 정했을 때의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딛고서야 더 정교한 지도, 더 유용한 안내도, 더 내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면 안내도는 더욱 업그레이드됩니다. 혼자서 생각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맘먹고 있는 것을 알려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활동이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작업’입니다. 나의 성장이 나 혼자 동굴에서 분투해야 하는 외로운 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해내는 즐거운 과정임을 여기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3월에 정리하고 세운 학습계획서를 기본으로 길잡이들은 수시로 여러분과 소통할 것입니다. 맘먹은 대로 잘 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떤 점이 잘 이행되지 않는데.... 내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벽에 선을 긋고 표시한 것처럼, 내 지성이, 내 감성이, 내 사회성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계획서는 한번 작성하고 어딘가에 넣어두는 보관용 문서가 아니다. 학생에겐 1년 내내 자기 학습 점검과 자기 관리의 지침으로 쓰이고, 길잡이 교사들에겐 학생의 성장과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교사와 학생이 대화하며 몇 차례 수정 작업도 한다. 학생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버전3 내지 버전4의 학습계획서가 만들어

진다. 1년을 마무리 할 때 오디세이민들레에서는 1년의 배움의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데, 이때에도 학습계획서를 보며, 정리의 가닥을 잡는 경우가 많다. 이래저래 유용하다.

2) 배움의 공동체 - 답임길잡이와의 시간, 그룹미팅

오디세이를 수료한 학생들 대부분이 꼽는 오디세이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한 배움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학교와 학습 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서기도 하고, 평가도 한 몫 할 것이다. 상대평가나 서열화가 아닌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돕는 피드백 중심의 평가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진 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로 느끼도록 한다. 그런데 교육내용이나 방식 그리고 평가를 넘어 실제로 배움의 공동체로 기능하는 활동도 있다. 바로 그룹미팅이다. 각 기관별로 그룹미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열 명 정도의 학생과 한 명의 길잡이가 한 그룹이 되어, 서로의 배움을 챙겨나가는 구조 또는 활동을 말한다.

‘그룹미팅’은 10명 이하로 편성된 그룹 학생들과 길잡이가 함께 모여 서로 돌아보고 배움과 성장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한다. 이는 오디세이의 교육활동은 물론 무심코 흘러보내기 쉬운 일상의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결국 나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3월 중순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 일상을 나눠보자”고 교사가 질문을 열면 “일요일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수준이던 대화가 9월 무렵이 되면 “가족과 주말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대화가 온통 대학입시 이야기였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좀 보이면 무슨 대학 어떤 학과를 갈지 정하고 싶은데 너무 의견이 다르다. 대학입시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고민이 된다”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룹미팅의 대화 주제가 ‘대학입시’ 또는 ‘가족이란 무엇인가’로 방향이 잡히고, 집중 토론이 진행된다. 부족하면 오후를 넘어 다음 날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른 그룹과 연합 토론을 하거나 전문가를 초대해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각자는 모두와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간다.

그룹미팅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기록하기’이다.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를 명심하며 자칫 흘러보내기 쉬운 활동을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챙기기를 그룹미팅에서 한다. 오디세이의 교육을 두고 ‘뭘 배웠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배움의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시험문제에 나오는 것이 아니면 공부가 아니고, 배웠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곤 한다. ‘그냥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해요’ 같은 말을 하는 아이도 있었다. 이후 민들레에서는 활동의 전반을 기록하도록 한다. 단순히 경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 점, 고칠 점, 배운 점 등의 요소들을 두루 기록하도록 한다. 이는 1년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 권의 책으로 엮는다. 학생들은 쌓이는 기록물을 보면서 불안에서 벗어

나곤 했다. 이 기록물은 그 자체로 배움의 과정이자 사유의 경로 경험의 지도 같은 거여서, 그 뒤로도 자신의 나침반 노트를 한다고 자랑스레 말하기도 한다. 학교로 돌아가 힘들 때면 책을 펼쳐보며 다시 씩씩해진다는 말도 한다.

이러한 ‘그룹미팅’의 명칭이나 시간, 방법은 각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활동내용이나 원리 또는 성격은 서로 거의 비슷하다. 오디세이 민들레는 ‘그룹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모두 4시간 동안 활동을 한다. 오디세이 혁신파크는 매 주 금요일 2시간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디세이 하자는 주3회 정도 하루단기 시간에 1시간 정도씩 시간을 갖는다. 오디세이 꿈틀은 그룹별로 별도의 시간을 정하거나 길잡이가 개별 상담 시간을 갖는다.

3) 여행 - 낯선 곳 낯선 사람이 주는 영감과 자극

오디세이에서 여행은 필수 교육활동이자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시나브로 축적되는 경험과 자극과 메시지, 그리고 일상을 떠나 낯선 곳에서 만나는 자극과 경험’이 그것이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학생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만들어낸다. 일상의 교육활동도 ‘넘나들기’를 통해 학교 밖으로 확장되지만 여행이 주는 자극이나 경험은 훨씬 크고 강렬하다. 특히 오디세이의 여행은 소규모 여행이어서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고, 또 기획이나 실행에서 대부분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낸다. 그러다 보니, 떠나기 전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여행의 교육적 기능은 작동하기 시작한다. 다녀와서 정리하고 결산하고 성찰하는 때면 여행의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된다.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해낸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눈에 보이게 또 안 보이게 하는 교사의 품은 일상의 활동에 들이는 것의 몇 배다. 그러다 보니 여행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겐 도전이고 실험이고 성취고 보람이고 즐거움이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쑥쑥 자라는 학생들을 보며 교사는 그 다음 여행을 다시 준비한다. 기관 별로 더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좀 덜한 곳도 있지만, 한 학기에 한 번은 긴 여행을 떠난다.

시작여행

네 기관 모두 3월에는 ‘시작여행’을 떠난다. 길게는 2주 짧게는 일주일의 시작 여행은,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동해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여행이라 이름 붙였지만, 여행이라기보다 오디세이 1년의 압축체험활동에 더 가깝다. 기관별로 여행지나 활동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오리엔테이션, 위밍업 등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서로 닮았다.

3월 여행의 가장 큰 소득은 짧은 시간 안에 서로를 완전히 파악하게 된다는 점이다. 각자 타고난 바와 자라온 환경도 달라, 낯선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긴 시간을 동고동락하다 보면 많은 것이 보인다. 자기도 보이고 남도 보인다. 교사가 학생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교사를 파악한다. 학생들 서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최소한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지 절로 생각하게 된다. 교사들 입장에서 시작점에서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기도 하다. 이때 만들어진 신뢰 관계가 1년을 간다.

또 오디세이 1년의 압축 체험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활동도 이뤄진다. 팀을 만들어 단기 프로젝트 활동도 하고, 아침 열기와 그룹미팅도 시도한다. 시작도 끝도 사람들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하고, 협력해서 해야 하는, 상황과 일찌감치 만난다. 본격 활동이 시작되기 전의 위밍업이기도 하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1년 동안 펼쳐질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린다. 오디세이민들레는 3월 시작여행에서 앞에서 언급한 1년의 학습계획서를 작성한다. 1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활동할지, 자신이 세운 목표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이고, 장애물을 넘기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구체적으로 떠올리며 학습 계획을 세운다. 익숙한 공간에서 습관처럼 되지 않도록,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배우고 활동하게 된다는 의미와 취지를 잘 안내함으로,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시작여행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다. 학생들은 긴 시간 함께 지내며 절로 친구가 되고 배움의 동료가 된다. 모든 게 낯설어 주춤거리지기 일수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길동무임을 알아갈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또 뭐든 스스로 해야 하는 거라는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오디세이민들레는 해마다 제주도에서 2주 전후의 긴 시간 동안 시작여행을 한다. 장소도 안덕면 대평리 마을로 고정되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디세이 혁신파크도 해마다 제주도에서 1주일 정도 시작여행을 갖되 장소는 해마다 바뀌가면서 실시하고 있다. 오디세이 하자는 3월 시작여행을 갖지 않고 4월 말에 영등포에서 시작하여 동해안 양양 앞바다까지 ‘걸어서 바다까지’라는 이름으로 9박 10일 도보 여행을 실시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3월 초 10일 정도 시작여행을 갖고 있다. 오디세이 꿈틀도 3월 초 지리산, 경주 등의 장소에서 10일 정도 시작 여행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행들

3월 여행에 비해 가을여행은 더 소규모에다, 거의 학생 주도 여행이다. 여행의 목적부터 여행지, 가서 할 일, 숙소, 돈 관리 등도 학생들이 맡아서 한다. 이 시기의 여행은 질문여행(질문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이다. 그룹별로 행선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그 동안 그룹 단위로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으로 이뤄지는 여행이다.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가운데, 각자에게 떠오른 화두 또는 질문을 모아서, 그 중 이 여행을 통해 풀어보면 좋을 질문을 골라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가을의 질문여행이다.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에 접어들어,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인생에 대한 질문이 구체화되면, 그 질문들을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 준비에만 거의 한 달이 걸린다. 이때 그룹별로 나의 질문을 모아 우리의 질문으로 정리하고, 모두의 질문을 가방 안에 넣고 여행

을 떠난다. 질문에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함께해보는 것이다. 이때 도와줄 사람이나 도움이 되는 장소 등은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찾고 섭외하고 정한다. 멀리 떠나지 않고 그냥 서울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방점을 두기도 한다.

이밖에도 여름여행, 수료여행, 선배 수료생과 함께 하는 여행 등 여러 성격의 여행이 있다. 오디세이 꿈틀은 시작여행과 가을여행 외에 1학기 마무리 직전에 여름 여행을 한다. 주로 한적한 자연으로 가서 3일 동안은 ‘소리와 몸짓 워크숍’을 갖는다. 이때는 1학기 동안 ‘소리와 몸짓’ 수업을 통해 익혔던 외북 공연과 사물놀이를 익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연을 한다. 그리고 이어 2박 3일 정도는 1학기 마무리 활동을 한다. 그리고 매 해 1월에는 오디세이 수료생들과 함께 하는 여행을 갖는다. 이때는 오디세이를 수료했던 선배들이 함께 해서 1년의 오디세이 과정을 마치고 본교로 복교하는 후배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오디세이 하자 와 오디세이 혁신파크는 12월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수료 여행을 한다. 이 시간을 통해 오디세이 1년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4) 프로젝트활동

‘스스로 배우고, 서로 배우고, 하면서 배우고, 넘나들며 배우기’는 오디세이의 중요한 교육원리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녹여낼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프로젝트활동’이 있다. 프로젝트는 먼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로를 설계하고 실행해나가는 프로세스이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현장의 프로젝트가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교육현장은 과정을 중요시 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무엇인지, 동료와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자기 관리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우고,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 그래서 교육에서의 프로젝트는 ‘하면서 배우는 그 모든 것이 학습 목표’에 해당한다.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너나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그래서 더 잘 배울 수 있었다”는 소회를 말한다. 물론 과정 중심이라고 애초 설정한 목표에 이르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프로젝트의 장점은 스스로의 힘을 통해 성취감을 맞볼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를 고려한 활동의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프로젝트활동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교사의 개입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개인 프로젝트 또는 팀프로젝트? 목표 설정 또는 주제 설정은 어떻게? 목표의 난이도는?’ 등이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프로젝트활동의 양상이 달라진다.

오디세이민들레의 프로젝트는 가장 먼저 팀활동을 전제로 한다. 2학기가 되면 상황에 따라 개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팀활동이다. ‘더불어 배우기’를 위해서다. 3월 제주 시작여행을 다녀오면 가장 먼저 일상적인 배움의 공동체인 ‘그룹’을 구

성한다. 프로젝트 팀 구성은 그 뒤에야 이뤄진다. 각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프로젝트 팀을 선택하는데, 가능하면 그룹 길잡이가 아닌 다른 교사와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하기도 한다. 가급적 다양한 어른을 만나야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로 4~5개의 프로젝트활동이 이뤄진다. 이는 대안교육기관 공간민들레에 속한 학교 밖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택지도 제공하고, 다른 경로의 또래와 만나 협업하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팀 단위의 프로젝트활동에 대해 1학기에는 불만을 토하는 아이도 더러 있었다. ‘무임승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여기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다. 자기만 열심히 하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의 노력에 업혀가는 게 싫다는 거였다. 팀프로젝트는 이런 경험과 기억을 ‘나와는 다른 걸 가진 친구들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즐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나 기억’으로 바꿔내기 위한 교육적 장치기도 하다.

교사의 개입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민들레의 경우, 프로젝트의 주제나 소재를 교사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것에서 구한다. 2019년도의 새로그침(폐플라스틱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프로젝트)은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교사가 깃발을 들었고, 게임을 즐기는 교사는 ‘세상에 나쁜 게임은 없다’는 깃발로 보드게임연구 프로젝트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교사의 관심이나 흥미에서 출발하는 까닭은 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견디며 아이들이 일정한 성취를 맛볼 수 있으려면, 교사 스스로 흥미와 정보와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꿉장난 같은 성취가 아닌, 진짜를 제대로 이뤄보는 경험이 가능하다.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교사의 개입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젝트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이나 포지션을 정확하게 소통해내려 한다. 이때 교사는 프로젝트활동의 지도자거나 책임자가 아니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활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좀 나이 많은 동료임을 설명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때부터 교사를 동등한 동료로 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성격을 강조한다. 그래야 개입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다. 1년을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마다 목표를 뒤나름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목표의 난이도를 세심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첫 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한다. 도전할 의욕이 생기기도 전에 자칫 좌절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해보고 싶다고, 교사에게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면 기쁘게 지켜보기를 하지만, 뒤에서 바쁜 건 매한가지다. 예상 경로를 예측하고, 미리 판을 깔아보기도 하고 섭외도 하고... 학생들의 ‘스스로’를 위해 일이 많다.

‘서로 배우기, 함께 배우기’는 공유회라는 장치를 통해 확장되고 깊어진다. 민들레 프로젝트활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승전결의 흐름을 갖는데, 각 단계에서 팀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걸 자랑하고 싶은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누는 공유회가 있다. 1년에 4회 공유회가 열린다. 1회는 각 프로젝트팀의 목표와 활동방식 등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구한다. 2회는 첫 번째 성취를 자랑스레 나누는 경우가 많다. 3회는 주로 어려움이 터져 나온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럼에도 그

런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간증이 조금씩 나오는 때기도 하다. 4회는 마무리다. 아이들 입에서 ‘스스로 배웠고, 서로 배웠고, 하면서 배웠고, 넘나들며 배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사들의 노고가 나름의 보상을 받는 때기도 하다. 이 힘으로 교사들은 다음 해의 프로젝트 주제를 떠올린다.

오디세이꿈틀, 오디세이하자, 오디세이혁신파크의 프로젝트 활동은 오디세이민들레와 활동의 원리를 공유한다. 다만 수업에 할당되는 시간 비중이나 교사의 개입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시간 면에서 주당 2-4시간 정도를 할당한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1학기 단위로 운영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활동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 당연히 각 단계마다 의사결정이 느리고 그 가운데 학생 상호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는 약간의 자극과 조언을 줄 뿐 깊게 개입하지 않는다. 대신 이 모든 과정에서 점검과 비평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경험이 흘러가지 않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작용하도록 돕는다.

5) 자치회의

오디세이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매우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곳이다. 20-30명이 한 단위로 모든 생활을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이로 인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이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가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자치회의이다.

자치회의는 매주 2시간 정도 할당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시간이 모자라서 방과 후 시간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치회의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물을 마시고 컵을 제대로 씻어놓지 않는 문제, 개인 물건이나 공동의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문제 등 일상 생활에서부터 수업 시간이나 여행 기간 중 핸드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욕설이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인한 문제 등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 수업의 내용이나 선생님의 수업 방법에 대한 불만의 문제, 최근 우리는 왜 배우려 하지 않는지, 서로 비판하고 피드백하는 게 잘 안되는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안건으로 나온다. 누구나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다.

자치회의 과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거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을 가지고 길게 회의를 해야 하는 과정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서로 합의하고 약속을 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또 다시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거나 폭발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 하다 보면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야말로 집요하게 끝까지 가본다. 이 과정을 온전히 겪다 보면 아이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체득해 간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일정한 규칙 가운데서 마음껏 표현하고 끝까지 논쟁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가는 과정인가 하는 것도 배운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간다.

6) 고1 학력 인정에 필요한 교과 수업 - 보통교과

오디세이학교 교과 수업은 크게 보통교과와 대안교과로 구성된다. 보통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수업 시수를 축소하여 이루어지고, 대안교과는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탐색해가는 오디세이학교의 교육 목표에 맞춰서 구성이 된다. 특히 보통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 학력인정을 위한 장치로 오디세이의 장점이자 한계를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보통교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따라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6 과목이 운영된다. 일반 학교에서 8단위로 운영하는 교과를 3단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 성취 기준을 따라 교과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재구성을 한다.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도 오디세이학교의 교육 목표에 맞추어 학생 주도적인 수업으로 구성을 한다. 보통교과는 공교육 교사들이 담당을 하는데, 이들이 오디세이학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길잡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면서 보통교과 수업도 오디세이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점점 녹아들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보통교과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다. 물론 수행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지필평가를 최소화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9등급 상대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아이들의 긴장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오디세이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에 조화롭게 재구성을 한다고 해도 영어나 수학 같이 다음 학년과 연계성이 큰 과목의 경우 입시 교육과정의 틀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7) 마무리 - 수업발표회

오디세이학교 1년의 과정은 수업발표회로 마무리된다. 수업발표회는 1년 동안 오디세이학교에서의 배움을 정리하고 이를 학부모나 지인들과 공유하는 시간이다.

오디세이민들레의 경우 오디세이학교에서의 모든 배움과 활동,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느끼고 성장한 모든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고, 그 책의 내용을 발표한다. 오

오디세이 꿈틀은 문화예술 중점과정 학생들의 경우 음악, 미술, 문학 등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집중 작업을 통해 한 가지 결과물로 정리해 발표를 하고, 인턴십 중점과정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준비하고 경험한 직업 세계의 인턴십 과정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각 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공연 및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한다. 오디세이 하자와 오디세이 혁신파크는 1년 동안 자신의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각각 한편의 완성된 글로 표현하고 이를 낭독한다. 그리고 각자 1년 동안 배움의 과정과 결과물의 책, 전시물, 음반 등의 형태의 결과물로 정리해서 전시를 한다. 1등도 꼴등도 없는 교실에서 모두 최선을 다한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잘 다녀왔습니다. 오디세이학교!”를 외친다.

4. 나가며

오디세이의 1년은 3월에 시작해 12월이면 마무리 된다. 여름방학을 빼고 나면, 정확하게는 아홉 달 동안의 시간이다. 만나면 헤어질 일을 떠올려야 하는 게 오디세이이기도 하다. 짧은 시간 탓에 자칫 하면 서두르게 되고 조급해진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정돈하고 욕심을 자주 내려놓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순서도 잘 정해야 한다. 교사끼리는 서둘러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다독거리며 1년을 보내야 한다. 이 기회를 빌어 한 차례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보니, 부족함이 새삼스레 보인다. 오디세이의 교육은 이로서 완성이 아니고 여전히 과정이다. 그 길에서 더 열고 더 듣고 더 대화하며 정성들여 갈 것이다. 많은 조언과 비판과 응원을 부탁한다.

대안학교에서의 수업

김 주 원

태봉고등학교 교장

대안학교에서의 수업



이름 : 김주원
별명 : 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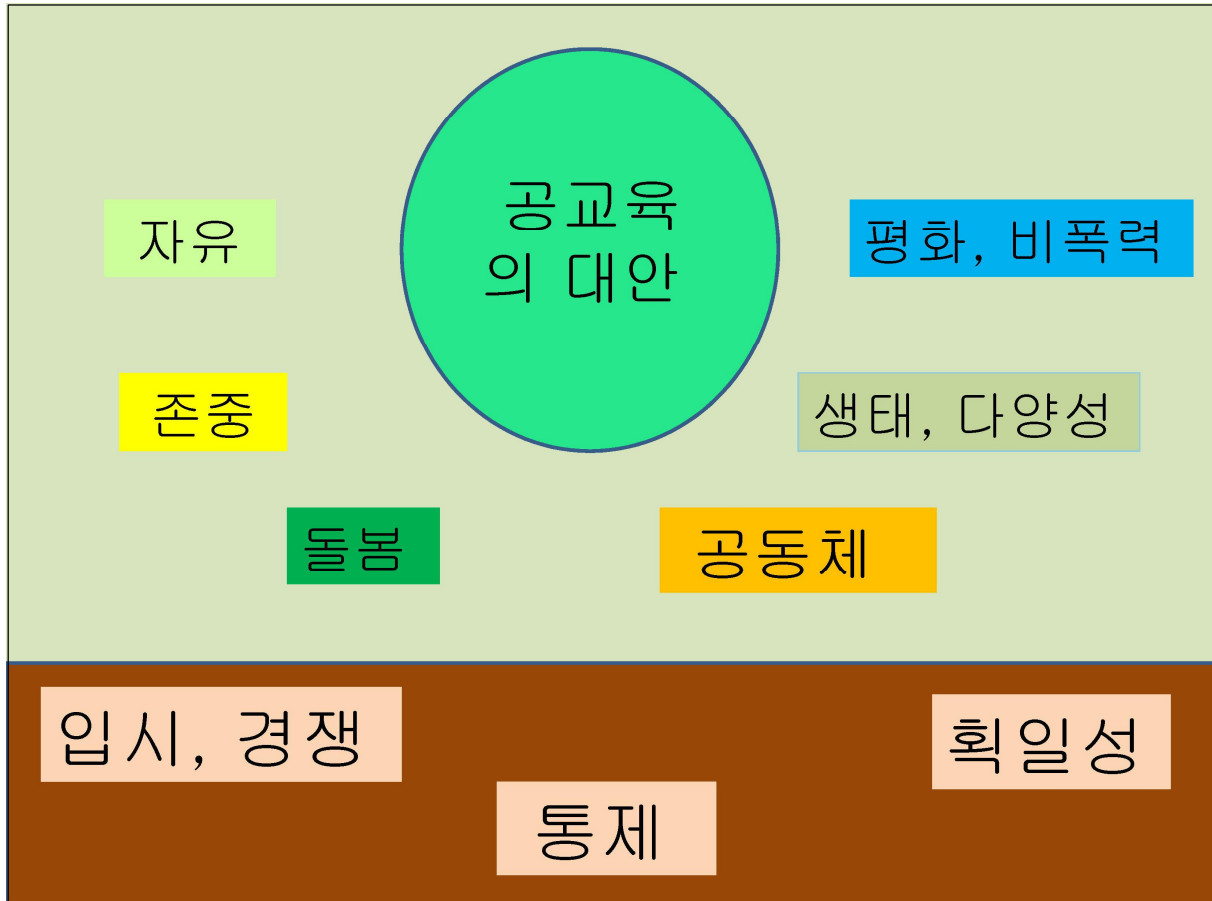
태봉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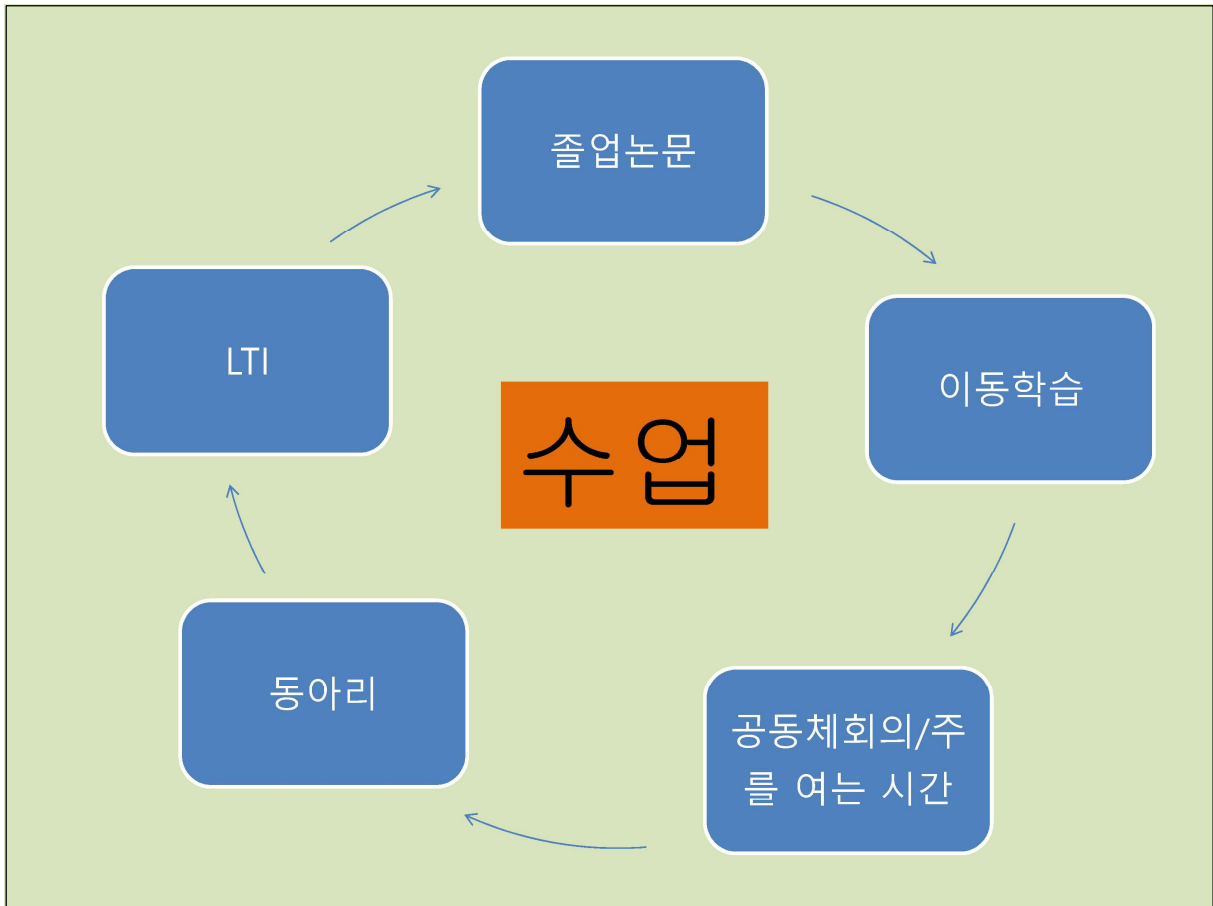
설립 : 2010년 전국 최초 기숙형 공립 대안 특성화고등학교

비전 : 학교를 넘어선 학교 사랑과 배움의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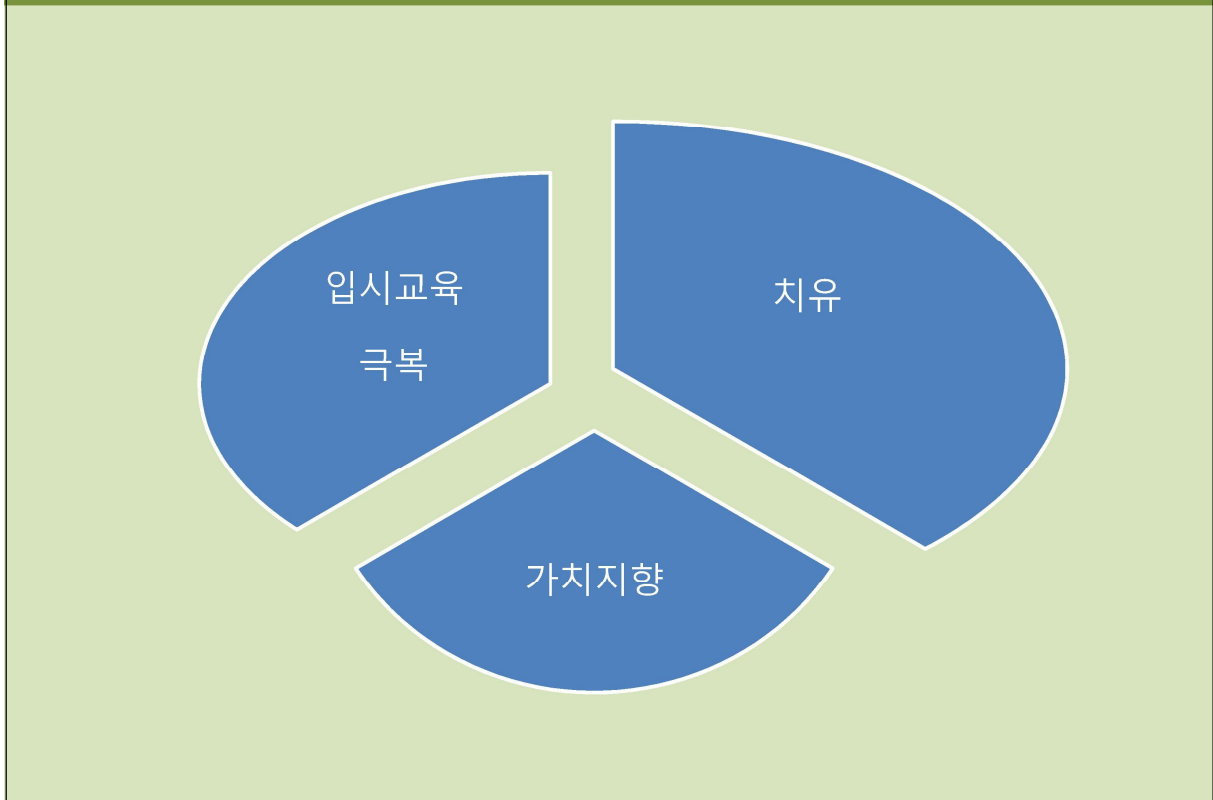
교훈 :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자.

학교 철학 : 건강, 사랑, 나눔, 자유, 상생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성격



대안교육의 위치 설정



전통적 수업과 진보적 수업

	전통	진보
교육이론	외부로부터 형성, 위로부터 부과	내부로부터의 발전, 개성의 표현이나 함양
교과내용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기능의 체계	학습자의 경험에 기초
과제	새로운 세대에 전달	현재 삶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
행위의 기준과 규칙	기준과 규칙에 일치하는 습관 형성	민주적 자치
수업의 목적	미래의 책임과 삶의 성공을 위한 준비	변화하는 세계에 친숙
교과서	과거의 지식과 지혜를 대표	참고자료, 경험이 중요
교사	지식이나 기능을 전달하고 행위 규칙을 강요	학습자의 능력, 욕구, 경험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자유를 도움
학생	유순, 수용, 복종	자발성, 주체, 존중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에서 정리

진보교육대한 비판

배격, 단순한 반대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철학은 지금까지의 교육이 기성적인 구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구성의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며, 경험에 기초하여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바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경험과 교육> 존 듀이-

20세기에 들어서 학교에서 대중을 이루는 ‘지식 습득 위주의 학과목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진보적 진영에서도 아동의 삶의 경험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으며, 그 요지는 종래의 방법론적 학습 과정을 아동의 직접적인 삶의 경험으로 대체하려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는 전통적 관점에서 다시금 호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런 접근 방식은 과거의 문화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 학습자의 시야를 현재의 경험에 집중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나 미래적 과제, 체계화된 지식의 습득, 혹은 어려운 과제에 전력을 다해 완수하는 힘의 배양 같은 문제 등을 간과한다는 등의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교육을 위한 아홉가지 성찰 p167-

두 수업에서 배우기



지리수업 박상용 선생님



2021년 태봉고 1학년 영어 수업

두 수업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지리수업	영어수업
교사		
학생		
형식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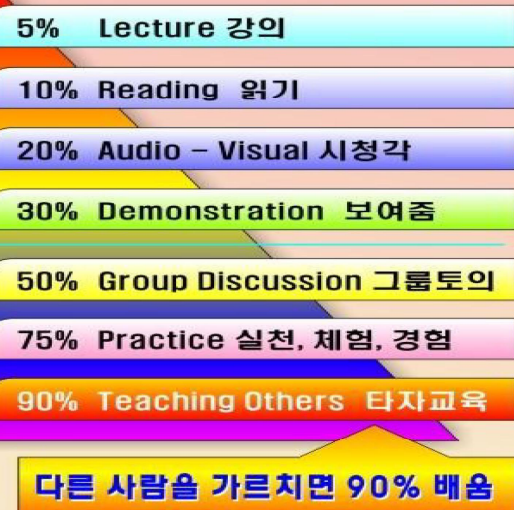
조용한 VS 말하는 공부 법



배움의 피라미드 [The Learning Pyramid]

학습방법에 따른 기억 보존력

수동적 학습
참여적 학습



* 출처: 미국 행동 심리학연구소 이론

21C 미래사회 핵심 역량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범지구적 소양	진로개발능력

활동중심 수업이 자리 잡지 못한 이유?



활동적인 수업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모두 학생에게

➡ 교사의 주제선정과 섬세한 돌봄

◆재미 있어야 한다

토론이 있어야 한다

➡ 대화가 있어야 한다

➡ 좋은 토론 매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끌임이 필요하다.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수준별 과제

➡공유를 통해 점프로

아이들은 왜 공부를 싫어할까?



축적된 지식/ 현재의 경험



수업의 과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로 하여금 생동하는 현재를 이해하는 잠재적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축적된 지식을 배우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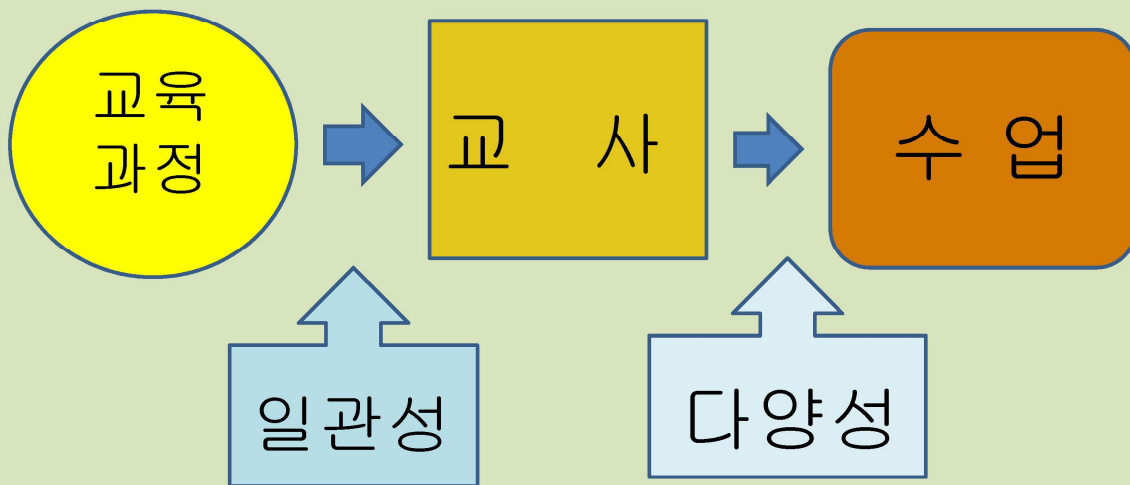
수업을 위한 교사의 과제

첫째 : 그 문제(주제)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의 여건에서 나오고 있으며 학생의 능력 범위 내에 있는가?

둘째 : 그것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적 탐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가?

- <경험과 교육> 존 듀이-

교실교육과정의 변화



학생을 참여시키는 학교(년) 프로젝트 수업 모형

주제 선정

큰 주제/ 많은 교과 / 학생참여

교육과정 짜기

수업

표현

지식시장/ 프리젠테이션

실천

서명하기/편지쓰기/
집회참여하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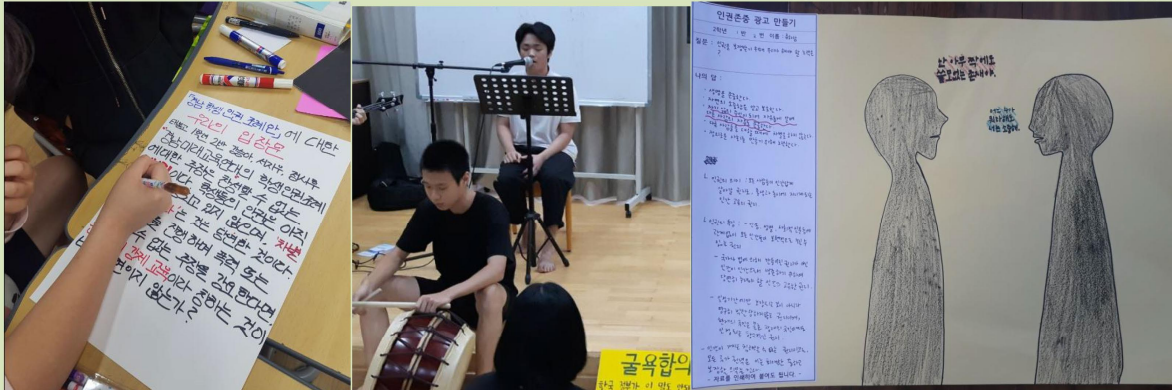
프로젝트 수업-흥덕고 한민수선생님

주제	성장소설 쓰기 - 우연에서 필연으로 (소설의 구성과 복선의 필요성 이해하기)
단원 구성	◇ 1차시 : 성장 소설 쓰기 활동 안내, 감춰진 진실1 (사물의 이면 보기) ◇ 2차시 : 감춰진 진실 2, 3 ◇ 3·4차시 : 교과서 성장소설 읽기, <세상에 단 한권뿐인 시집(박상률)> ◇ 5차시 : 우연에서 필연으로 (사건의 필연성 만들기) ◇ 6차시 : 배경은 왜 중요한가, 이야기에 걸맞는 배경 ◇ 7차시 : 인물간의 관계, 대화로 인물의 성격 드러내기 ◇ 8차시 : 체험과 발견 (체험에서 소설이 될 만한 이야기 찾기) ◇ 9차시 : 소설 착상 (소설을 구체화하기) ◇ 10·11차시 : 소설 쓰기 - 교사의 첨삭지도 ◇ 12차시 : 소설 완성, 책으로 꾸미기 (표지는 미술 시간에 작업) ◇ 13차시 : 친구 소설 평가하기, 소설 쓰기 수업 평가

통합 주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수업 주제	기자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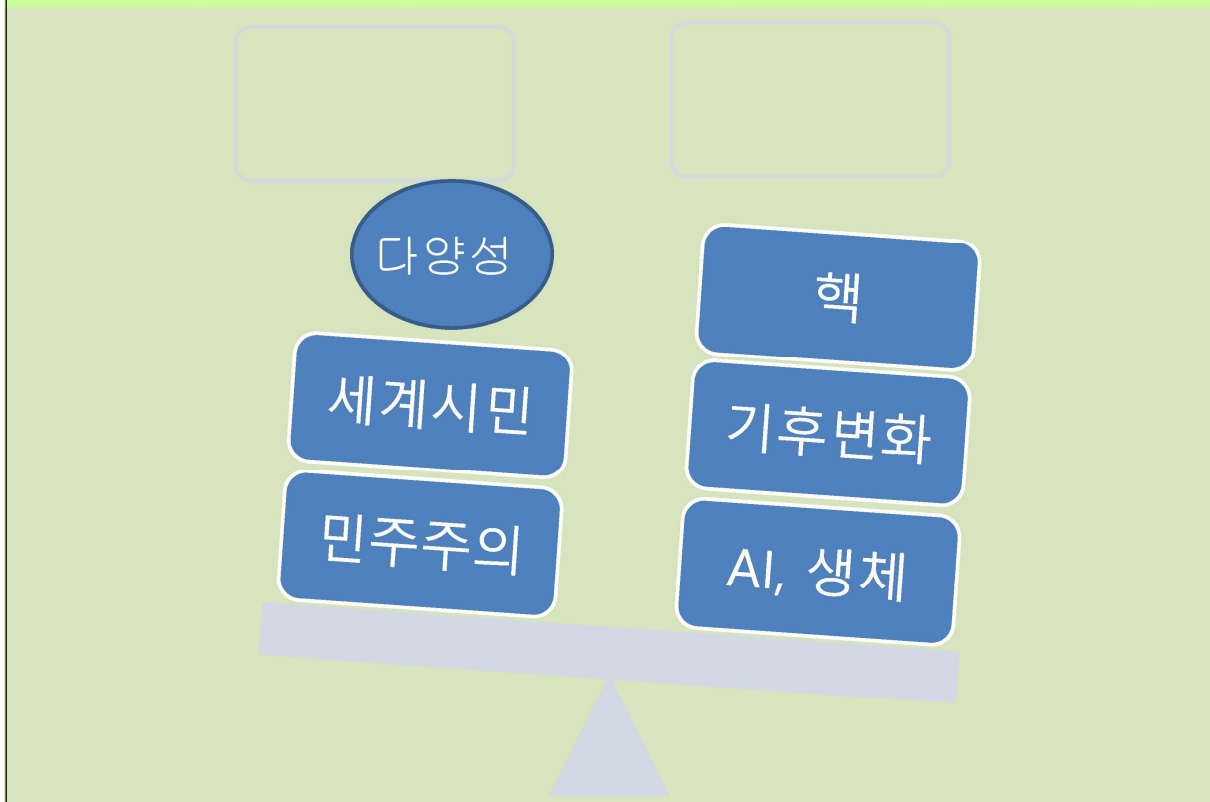
수업의 구성		도덕	국어	사회	과학	실과	차시	주요 배움 내용
	도입						1-2	신문에 나오는 사회문제가 나에게 주는 영향
							3	밀양 송전탑 갈등 관련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 나누기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 까?						4-6	전류, 전압, 전기회로
							7-9	전구와 전지의 연결
							10	전류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11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
							12	전자파에 대한 긍정론 부정론 비교하기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 가?						13-14	밀양 송전탑 글을 읽고 주민들의 주장 알기
							14-15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16-18	주장의 타당성 판단하기
							19-20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 주위에서 정치 발견하기, 송전탑 문제에서 정치 발견하기
							21-22	밀양 송전탑 문제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23-24	글에서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
							25	밀양 송전탑 관련 글을 읽고 글의 관점이나 의도 파악하기 (본차시)
							26-27	관점과 의도가 다른 글 비교하고 나의 관점으로 글쓰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8-30	기본권의 관점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 바라보기
							31-32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주의 원칙 토의하기
							33-34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
							35-36	전자부품의 기능
						37-40	전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전가전자제품 만들고 설명하기	

태봉고에서 다루었던 주제들



년도	1학기	2학기
2018	미투 운동(삶과 철학)	인권과 평화
2019	민주와 평화를 위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복
2020	코로나19	
2021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행복한 공간 만들기	

21C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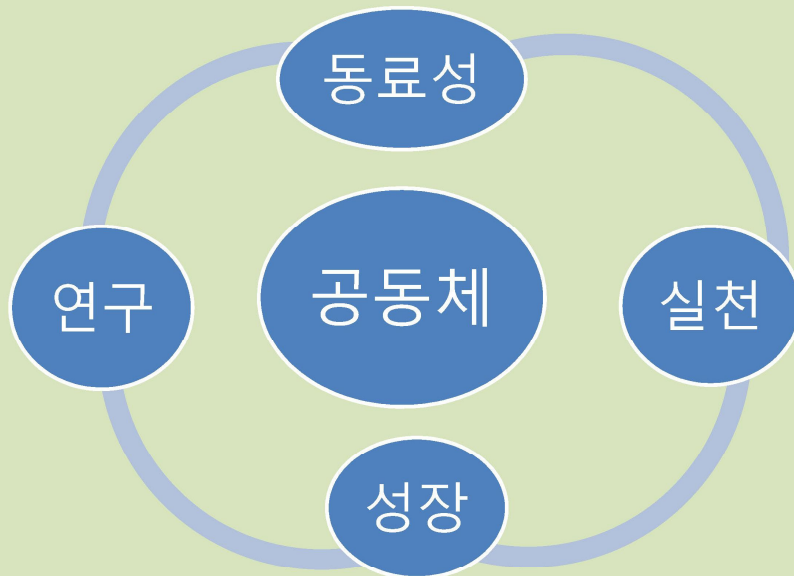
학교는 어떻게 바뀌는가?



수업협의회 -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중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위한 세 가지 질문

1. 나는 교사로서 자존감을 갖고 있는가?
2. 나는 동료들 돕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3. 나는 동료들과 함께 결정하고 있는가?

-엔디 하그리브스, 마이클 폴란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set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text entry.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sets of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horizontal dotted lines.